

2010년도

道政白書

제2절

생애 주기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1.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조성
2. 함께하는 따뜻한 아동복지 실현
3.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보육서비스 확대
4. 저출산 대응기반 조성



1.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조성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말 현재 5,506천명으로 총 인구의 10.9%이며, 도내 노인인구는 204천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도 연장되어 1981년에 66.2세였던 것이 1991년에는 71.7세로 늘어났으며, 2030년에 81.9세 2050년에는 83.3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사회도 머지않아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각적인 노인복지 정책의 개발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2010년도 우리 도의 주요 노인 복지정책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나. 주요성과

도정목표인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을 뒷받침 하기 위해 도 전체 사회복지예산 (7,865억원)의 22.1%에 해당하는 1,739억원을 노인복지분야에 투입하여 노인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5,101명을 대상으로 400억원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58명의 노인에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였고, 20억원을 투입하여 4,928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치매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군 13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였고, 충주를 비롯한 4개 보건소에 치매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치매 노인 및 가족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후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을 위하여 151천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1,482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시행 3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운영성과 평가대회에서 우리 도가 우수상을 차지 (2010.12.10) 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한편, 건강하면서도 활동력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9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6,246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층의 경제문제·소외문제등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역노인봉사대를 운영하고 노인자율봉사활동을 지원하여 노인층의 사회봉사를 통한 자아 실현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노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여가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관의 운영비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전통예절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60백만원을 지원하여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효문화전승발전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버이날과 노인의날을 기념하여 효행자 및 모범노인등 4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20명의 장수노인에게 청려장을 수여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기초노령연금 평가대회 “우수” 수상(2010. 12. 10.)

다. 발전방향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 복지시설 및 노인주거기반 확충, 여가문화활동 기회 확대등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16,792명(2008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고령은퇴자의 재취업 및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증진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노인일자리사업 및 봉사활동지원, 기초노령연금제도등을 확대 시행할 것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치매관련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적극적 홍보를 병행 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수요의 증가는 단순히 양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성과 적절성 등 복합적인 요인을 수반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정책 역시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도는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활기찬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작성자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팀 서정환 / ☎ 220-3061

'10년 노인복지 성과

- ⇒ '10년도 기초노령연금 평가대회 우수 수상(2010. 12. 10.)
- ⇒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1,799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이용자 지원(5,988명)
- ⇒ 노인 소득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노인 일자리 추진(6,246명)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147천명 →151천명)
 - 노인자원봉사 지원(3,600명)

2. 함께하는 따뜻한 아동복지 실현

가. 추진배경

2010년말 현재 도내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은 318,990명으로 도내 인구 1,549,528명중 2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도 도내 인구 1,519,587명중 아동이 331,949명으로 21.8%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동수와 비율, 양측면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수와 아동비율의 감소는 저출산 경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동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요보호아동 형태의 다양화와 복지욕구의 증가 등으로 다각적인 면에 대한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초기 복지의 형태는 소년소녀가정 또는 결함가정 아동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외에 부가 급여 지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점차 이혼·가출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증가와 사회양극화 심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등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되는 환경적 요인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정목표인 “찾아가는 평생복지”의 실현과 아동복지의 궁극의 목표인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자립형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아동복지 정책의 시행이 요구된다.

나. 주요성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0세부터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내실화 하고 다양한 아동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 한해 40여개 아동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42,03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고자 아동복지시설 14개소에 9,35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생활가정 23개소에 86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둘째,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166개소로 확충하고 운영비 6,12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을 3,730명 2,954백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적립금을 1,190명에게 429백만원 지원하고 만18세가 되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의 조기자립정착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을 231명에게 517백만원 지원하였다.

넷째,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처해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건강, 보육, 복지 등을 통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드림스타트센터를 5개소 설치하여 각 시설당 운영비 3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치료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운영·지원, 결식 우려아동에 대한 학기중·방학중 급식 지원, 입양아동 지원 사업 등을 펼쳤으며 아동의 정서 함양과 체력 증진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을 위한 극기훈련 및 축구대회, 꿈나무예술제 등 다양한 행사도 추진하였다

다. 발전방향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가정적·경제적 사정으로 가정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의 보호사업체계를 내실화하고 시설퇴소아동 등 만18세가 되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의 사회적응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사회진출 시 학자금이나 취업·창업·주거마련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 후에 생활지도 및 급식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며 사후관리적 단일서비스에서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로 전환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 보육, 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아동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드림스타트센터를 1개 시군 1개 센터로 확대 설치하여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자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아동복지팀 이창형 / ☎ 220-3071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성과

- ⇒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내실화 및 저소득아동 자립기반 조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확대를 목표로 설정
- ⇒ 아동생활·이용시설 지원 및 자립·통합 서비스 지원
 - 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홈 37개소 10,221백만원 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 166개소 6,129백만원 운영·지원
 - 드림스타트센터 5개소 1,500백만원 운영·지원
- ⇒ 향후 드림스타트센터를 각 시군으로 확대 설치하여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력

3.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보육서비스 확대

가. 추진배경

정부 보육정책 추진 방향과 급변하는 보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보육정책을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고자 각종 보육사업 및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충청북도는 부모의 보육비용 완화, 수요자 맞춤형보육 강화, 보육의 질제고 및 균형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보육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의 과제로 보육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보육예산의 경우 2010년 1,626억원으로 2007년 대비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2-5-15> 보육예산 현황

(단위 : 억원, '10.12.31일 기준)

총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시설수	예산액	시설수	예산액	시설수	예산액	시설수	예산액	시설수	예산액
3,978	5,155	879	944	950	1,154	1,037	1,431	1,112	1,626

먼저 부모의 보육비용 완화를 위해 소득하위 70%이하 차등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4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였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보육을 위해 시장연장 등 보육시설 255개소를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아전담 및 통합시설 운영 21개소,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셋째, 보육의 질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해 연간 보육계획 수립 등으로 안정적인

제 2
편
제 5
장

수급을 추진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기능보강사업 30개소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은 물론 분야별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연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335명, 인건비 지원 359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54억원 지원하고, 대체교사를 상시 파견하여 보육공백의 최소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주력해 왔으며,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시설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육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과 평가인증, 보육과정, 급식위생 안전교육 등 연중 141회에 걸쳐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및 보육시설 서비스 제고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 발전방향

충청북도는 부모의 보육비용 완화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 등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장애아 및 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육서비스,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또한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보다 우수한 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육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자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육지원팀 신봉호 / ☎ 220-3081

보육지원 성과

- ⇒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육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복지증진 기여
- ⇒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교직원 전문성 제고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4. 저출산 대응기반 조성

가. 추진배경

충북의 2010년도 합계출산율은 1.40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1.23명보다는 상회하나 OECD 선진국 평균 출산율 1.75명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전반의 활력 저하와 성장 잠재력 약화 초래가 예상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출산장려 인식개선 사업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였다.

나. 주요성과

2007년 전국 최초로 모든 둘째아 이상 출산아 가정에 지원하기 시작한 출산장려금은 금년에 연간 82,292명에게 둘째아 월10만원, 셋째아 이상 월20만원을 1년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출산친화 사회분위기조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지급기준을 도내 거주 12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였으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 월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수혜자 중심의 시책변화를 도모하였다.

<표 2-5-16>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단위:명, 백만원)

구 분	연 인 원	금 액
2007년	56,691	6,212
2008년	87,111	9,801
2009년	76,586	8,552
2010년	82,292	9,659

다자녀 가정이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674개소의 유아용품제조업체 등 민간업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다자녀가정이 농협충북지역본부에서 발급받은“아

이사랑 보너스 카드”로 이들 업소를 이용할시 할인 우대 혜택을 주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0. 12월말 현재 5,300여 세대가 수혜를 받고 있다.

2009년 7월 3일, 지역의 언론계·종교계·경제계·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미혼남녀 인연 맺기, 대학생 인식공모전, 출산장려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출산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임산부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태교음악여행”를 개최하였다.

또한, 출산장려 동영상 제작 TV송출, 대중교통을 활용한 포스터 광고, 종이컵을 활용한 표어 홍보 등 출산장려 맞춤형광고 추진하였으며 공공부문이 먼저 출산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선도를 위하여 도청내 모성보호(수유)실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은 충북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5-17>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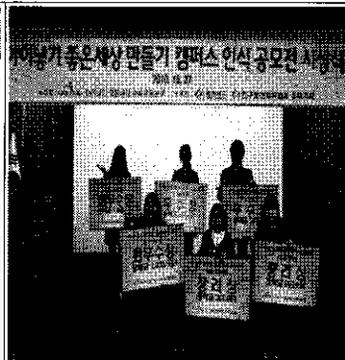
구 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2009	2010	증감	2009	2010	증감
전 국	444,849	470,171	25,322	1.15	1.23	0.08
우리도	13,903	14,670	767	1.32	1.40	0.08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



2010. 10. 1. 아이낳기 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출범 1주년 기념
“금난새 태교음악 여행”

〈아이낳기 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사업〉

		
<p>2010. 5. 미혼남녀 인연 맺기</p>	<p>2010.10. 대학생 인식공모전</p>	<p>2010. 9. 출산장려 공동 캠페인</p>

다. 발전방향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나 단기간 내 정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도에서는 사회 각계가 참여한“아이낳기 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를 주축으로 가족 및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생명존중의식 제고, 양성평등의식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등 인식개선과 환경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저출산 문제를 타개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자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저출산대책팀 여운복 / ☎ 220-3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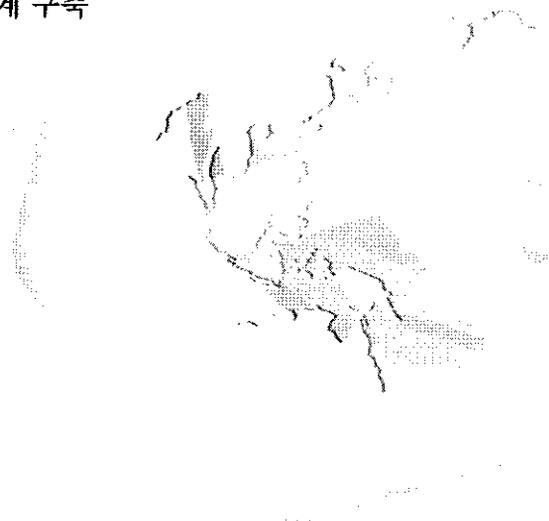
2010년도

道政白書

제3절

도민 건강수준 향상

1.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강화
2. 찾아가서 돌보는 건강증진사업 추진
3. 의료서비스 향상 및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
4. 감염병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1.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강화

가. 추진배경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함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보건기관과 지방의료원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의료기관의 도시지역 집중화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1994년부터 농어촌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총 717억원을 투입하여 노후되거나 부족한 보건기관 220개소를 신·증축하였고, 의료장비 70건, 보건차량 58대를 구입·지원하여 보건기관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정밀하고 첨단화된 의료장비로 보건의료의 질을 높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거점병원에 2006년부터 낙후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382억원을 지원하였고,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민자사업에 564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반면,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의료취약지역이나 저소득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의료반을 편성하고, 농번기에는 월 2회, 농한기에는 월 4회 씩, 오지마을과 농촌마을, 노인정 등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진료와 투약, 침, 건강상담 등의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0년도에는 5,508개소, 408,519명이 혜택을 받았다.

《 이동진료반 편성·운영 》

- 인원 및 장비 : 4명(의사 1, 간호사 1, 보건요원 1, 운전원 1), 차량, 의료장비
- 내용 : 환자진료 및 투약, 보건교육, 건강상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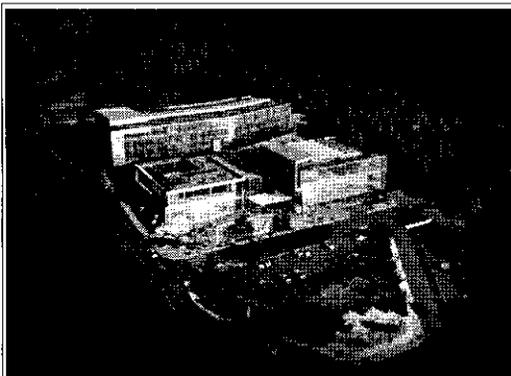
또한,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와 만성, 퇴행성질환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91년도에 전국 최초로 13개 시군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였고, 보건지소에도 확대 설치하여, 2010년 4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66,011명이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등 노인건강을 위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도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시혜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대상자로서 2010년도에는 622,570명을 무료진료 하였으며, 도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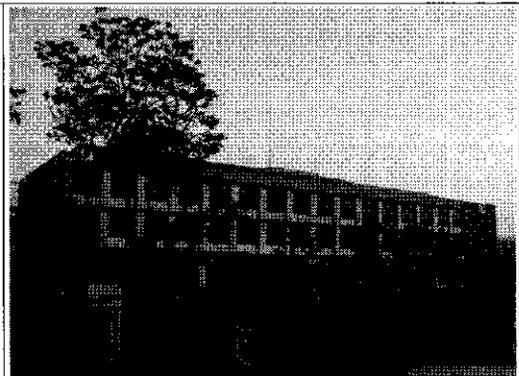
<표 2-5-18>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09	보건기관 개선	23건	8,131	5,421	1,355	1,355
	지역거점공공병원	2개소	10,096	5,648	4,448	
2010	보건기관 개선	22건	6,174	4,116	1,029	1,029
	지역거점공공병원	2개소	8,280	4,140	4,140	



충주의료원 신축 조감도



신축 보건소 전경

다. 향후계획(발전방향)

공공보건의료가 과거에는 민간의료에 대한 보완자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는 도민들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도는 이에 맞추어 보건소 ↔ 지역거점공공병원 ↔ 국립대병원 등으로 이어지는 연계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과 기능강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도민에게 다가가는 차원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펼쳐갈 계획이다.

작성자 :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이주원 / ☎ 220-3111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 ⇒ 노후되거나 부족한 보건기관을 신·개축하고 부족한 의료장비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09~'10)
 - 보건기관 신·증축등 220개소 671억원, 의료장비등 확충 128건 46억원
- ⇒ 낙후된 충주의료원 신축이전 민자사업(564억원) 추진으로 중북부 지역 거점병원 역할 수행 및 현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 청주의료원 리모델링 및 포괄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 리모델링('08~'11) 196억원, 정신병동 신축('11~'13) 200억원
- ⇒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취약지 이동순회 무료진료 5,508개소 408천명
- ⇒ 지역주민의 기대치 상승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로 주민의 건강수준 제고

2. 찾아가서 돌보는 건강증진사업 추진

가. 추진배경

건강증진 접근의 원칙은 개인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경제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건강한 삶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증가, 노인인구 비율이 13.2%에 달하여 의료비 증가, 질병구조의 다양한 만성화로 예방차원의 건강관리 정책 필요, 인구집단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 “온 도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충북”을 만드는데 그 배경이 있다.

나. 주요성과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97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지속 확대 추진하였으며, 도내 127명의 방문건강관리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빈곤, 질병 장애, 고령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족 및 가구원 61,299가구에 대한 정기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고혈압·당뇨 등록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투약관리를 통하여 질병의 조절율을 높였으며 뇌혈관질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가 보살피는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부인과 없는 시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임산부에게 산전관리서비스를 제공,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1,396명(1,244백만원)에게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481명에게 혜택을 주어 산모와 신생아에게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임신·출산·육아관련 종합상담을 위하여 정보콘텐츠(www.aga-love.org)를 이용하게 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을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흡연예방과 흡연자의 금연사업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금연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13개 시·군보건소에 1,204백만원을 투자하여 금연프로그램 및 흡연에

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는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건강에 대한 유익한 생활양식과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위해요인을 조기발견·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동군보건소가 ONE-STOP service 사례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려운 도민 의료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의치보철 1,059명, 1,781백만원을 투자하였고 도내 보건소 4개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전개하였고, 우리나라 질병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암 퇴치를 위해 5대암의 조기검진 445,412건/1,889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1,583명에게 진료비 1,95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충북지역 암 등록·관리 등 체계적인 지역암관리를 위하여 충북지역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2,577명,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503명에게 605백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임신부·영유아 보충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하여 불량한 영양상태의 임신부 및 6세미만의 영유아 4,959명에게 보충영양식품등을 제공하여 미래세대 국민건강을 좌우하는 영유아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표 2-5-19>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

(단위 : 가구/횟수, '10.12.31일)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등록가구수	방문횟수	등록가구수	방문횟수	등록가구수	방문횟수	등록가구수	방문횟수
45,010	146,820	54,896	231,698	60,362	327,027	61,299	338,260



<<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현황 >>

다. 향후계획

생활습관은 만성퇴행성질환의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건강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강화로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 의식 및 건강행태개선 능력을 배양하고 임산부 산전·산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맞춤형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자가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건강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는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족, 방문건강관리가구)대상을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문보건사업을 중점과제로 추진하며, 사업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 추진력을 확보할 것이다.

작성자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김교영/ ☎ 220-3121

건강증진사업 성과

- ⇒ 산부인과 없는 시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팀 운영으로 친화적 출산 환경 조성
- ⇒ 취약계층인 노인, 만성질환자 대상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으로 ONE-STOP 건강관리서비스 질 향상
- ⇒ 노인의치보철, 암조기 검진, 암환자의료비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3. 의료서비스 향상 및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

가. 추진배경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는 등 환자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와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나. 추진성과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높아진 서비스 요구와 환자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불친절, 진료거부행위 단속 등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도내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5-20> 의료기관현황

(‘10.12.31일 기준)

연도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 의원
2009	1,426	10	59	758	284	310	1	4
2010	1,485	10	72	768	308	322	1	4

<표 2-5-21> 의료기관지도단속 등의 실적

(‘10.12.31일 기준)

연도별	대상 업소	위반 업소	처분사항					
			고발	취소	정지	시정지시	경고	기타
2009	1,426	69	8	1	1	56		3
2010	1,485	46	5	1	0	39		1

또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날로 심각해 지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해결하고,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01년 청주시 도립노인전문병원, 2009년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6개소의 공립노인전문병원을 개원하였으며, 민간 노인병원으로 초정노인병원, 참사랑병원, 하나노인병원 등 도내 총 27개소 노인요양병원 3,427병상을 갖추어 전문적으로 노인성 질환을 관리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를 위해 관내 응급의료기관 20개소(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를 지정·운영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였으며, 이중 우수 응급의료기관 6개소에는 노후장비 교체 및 인건비 등에 활용토록 35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청원군, 보은군, 단양군지역의 3개 병원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477백만원을 지원, 응급의료에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응급상황처리 및 평상시 질병상담 등을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277백만원을 지원하여 질병상담 689건, 응급처치지도 448건, 병원안내 42,402건, 구급차 출동 19건, 약국안내 1,732건, 기타상담 117건 등 '10년 한해 동안 45,407건의 응급관련 상담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1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급차 운전자, 보건교사, 운수업 종사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6,567명이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향상시켰다.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모습 >>

<표 2-5-22>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적

('10.12.31일 기준)

구분	구급차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경 찰 공무원	산업체	관광,항공 종사자	기타
교육인원	42	2,789	75	2,611	93	33	924

인구의 고령화 및 급격한 사회변화로 정신건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도에서는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정신보건사업단 설치,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였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정상인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센터운영 7개소 1,067백만원, 정신요양시설 4개소 5,564백만원, 사회복지시설 8개소 5,846백만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및 알코올상담센터운영비 21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환자인권을 보호하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12개소,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1개소 등 13개소를 운영하여 총 2,335명을 심사하여 138명이 퇴원판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지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정신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었다.

다. 향후계획(발전방향)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의료환경 조성,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의료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자 :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 김양수 / ☎ 220-3131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 ⇒ 2010년 관내 의료기관 1,485개소, 응급의료기관 20개소
- ⇒ 노인요양병원 27개소, 3,427명상 운영으로 날로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 관리
- ⇒ 45,407건의 응급관련 상담 수행 및 6,567명의 응급처치 교육 등 실시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4. 감염병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의 무역, 해외여행을 통한 국가간의 교류증가는 감염병의 국경을 없애 감염병의 전파를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질병과 감염병 발생위험이 커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충북도를 위하여 감염병 연중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 확대 실시, 결핵예방관리사업, 한센, 에이즈, 성병 관리와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활동을 전개 하였다.

나. 주요성과

2009~2010년 인플루엔자 A(H1N1)의 대유행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격리치료, 예방접종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법정 감염병의 연도별·지역별·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 분석하고,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운영을 위해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72곳, 감염병 정보 모니터요원 1,508명을 지정·운영하여 감염병이나 집단 설사환자를 매일 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환자 발생시 격리치료시설로 22개소 344병상을 확보하고, 재해대비 감염병 예방약품을 비축하는 한편 방역취약지 3,986개소를 지정, 매년 4회 이상 집중방역을 실시하는 등 급성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였다.

아울러, 환자발생시 신속한 현지출동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도 및 시·군별로 각 1개반씩 총 14개반을 편성·운영하였다.

<표 2-5-23> 제1군, 2군 감염병 발생현황(2009~2010)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구 분	2009년	2010년	구 분	2009년	2010년
콜 레 라	-	-	홍 역	-	-
장 티 푸 스	3	4	유행성이하선염	184	327
파라티푸스	2	-	풍 진	0	1
세균성이질	-	3	백일해	0	0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2	일본뇌염	1	1
			수 두	795	801

2009~2010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전염병 대응요원 및 학생, 임신부, 만성 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65세이상 노인에게 인플루엔자 A(H1N1) 예방접종을 1차 427,553건, 2차 62,640건을 접종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기여하였다.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는 BCG,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Td,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 접종은 473,662건 이고 병의원 접종은 225,537건이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이상반응 신고 59건, 역학조사 12회, 피해보상 신청 12건, 피해보상 3건을 처리하였다.

2009년 3월부터는 육아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만12세미만 아동이 병원에서 예방접종시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하여 접종비용의 약30%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취약지 방역소독



학생 예방접종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결핵관리사업, 한센병검진사업, 에이즈환자 조기 발견 및 감염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결핵관리사업은 결핵 감염우려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기발견을 위한 X-선 이동검진 및 결핵균 검사 18,000명을 실시하여 감염성 결핵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자 노력하였다. 발견된 환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치료환자도 결핵정보감시 시스템에 등록하여 2010년 12월말 현재 우리도내 983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한센인 관리 및 검진을 위해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지부에서는 도내 시·군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이동검진 및 진료를 실시하였는데, 재가환자, 의심환자, 일반 피부질환 내소환자 등 60,935명을 검진하였으며, 이동진료반이 2개 정착촌에 월 1회씩 정기순회 진료와 연 1회 이상 환자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등록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표 2-5-24> - 한센인 등록 현황-

(단위 : 명)

년도	계	주 거 별		균 동 태		성 별		관 리 형 태		
		재가	정착	양성	음성	남	여	요치료	한센서비스	
									대상자	재발관리
2009	319	270	49	3	316	193	126	152	167	152
2010	310	259	51	1	309	186	124	147	163	147

에이즈 및 성병관리를 위하여 성병 전파우려가 높은 유흥업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실시하여 61,761명이 검진을 받았고, 그 중 418명이 감염되어 352명을 등록, 치료하였다.

성병 감염인에 대하여는 보건소 및 1,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게 함으로써 감염자 보호와 타인에게 3차 감염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다. 발전방향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병의원접종비 지원금액을 높여 경제적 부담없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접종편의 제공으로 누락없이 완전접종토록 하는 등 예방접종율이 95%이상인

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전파 차단 및 치료를 위하여 거점지역 격리중환자시설 1개소, 격리외래시설 3개소를 설치하였고, 향후 국가음압격리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감염병예방 및 관리로 도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작성자 : 질병관리팀 이승우 / ☎ 220-3141

성과

- ⇒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5억 4천만원을 투자, 격리외래시설 3개소 격리중환자실 1개소 설치
- ⇒ 2009년 3월부터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확대사업으로 만12세 미만 아동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하여 접종비용의 약30% 지원
- ⇒ 만성감염질환 관리사업으로 결핵균검사 18,000명, 성병검진 621,761명, 한센병관련 피부질환검사 60,935명을 검사하는 등 변화하는 각종 감염질환에 대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2010년도

道政白書

제4절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1. 음식문화 선진화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
2. 식품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3. 지역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
4. 의약품 유통관리 및 한약산업 육성



1. 음식문화 선진화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

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사전예방

(1)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원스푸드 전개

최근 주5일제 및 외식문화의 발달, 생활수준향상 등으로 인하여 음식문화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음식 제공, 청결하고 간소한 상차림 실천으로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 남은 음식 재사용 예방을 위하여 원스푸드를 전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음식재사용無, 원산지 허위표시 無, 트랜스지방 無에 대한 3無운동전개와 親 환경, 親 인간, 親 건강 운동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칠당간에서 500명으로 하여금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원스푸드」 캠페인이란 Once, Nice, Clean, Enjoy Food의 줄임말(ONCE FOOD)로써 딱 한 번 사용한 음식은 맛도 좋고 깨끗하며 누구나 즐기길 원한다는 뜻으로 친환경·친인간·친건강을 위한 실천운동이다.

(2) 식중독 사전 예방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예방·홍보 활용을 펼치고 있지만 쉽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식중독 발생 추세를 보면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원인 불명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300㎡이상)을 대상으로 영업주, 영양사, 조리사 및 시·군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식중독지수 30이상일 경우 매일 식중독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1,800여명에게 발송하고 있다. 또한 식중독 예방 간이검사 키트 2,000개를 보급하여 조리기구 칼, 도마 등 식중독균 검사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2-5-25> 식중독 연도별 발생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건수	환자	건수	환자	건수	환자	건수	환자
계	9	345	4	295	4	222	7	200

<표 2-5-26> 식중독 연도별 원인균별 발생현황

(단위: 건, 명)

구분	계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	노로 바이러스	황색포도 상구균	기타	원인 불명
2007	9(345)	1(25)			2(188)	1(12)	2(82)	3(38)
2008	4(295)	1(13)	1(23)		1(160)			1(99)
2009	4(222)		1(29)			1(118)	1(8)	1(67)
2010	7(200)		2(62)	3(40)	1(85)			1(13)

나.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청결 서비스 개선

(1) 영업자 위생, 친절 서비스 교육 강화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의 청결상태 및 친절 서비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기존 및 신규업주 위생교육을 69회 20,043명에 대하여 맛·청결·친절 서비스 개선 및 개인위생, 영업장 환경 및 화장실 청결상태,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가격의 적정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표 2-5-27>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현황

구분	총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총계	69	20,043	47	17,831	9	1,204	6	241	7	767

(2) 식품접객업소 자율위생교육 지원(Call Service)

식중독 발생과 위해식품 유통, 도민 건강저해와 위반에 따른 이미지 추락과 영업손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개인위생과 식품취급 등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처분관련 식품위생법 안내로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하여 고속도로휴게소,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34개소 957명에게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

(1)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들의 영양섭취 과잉과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생활 습관병이 증가하고 외식,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생활 확산으로 영양과잉이 초래되고 있지만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주변 어린이들의 식생활 변화에 맞는 적극적인 식품안전과 영양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식품안전보호구역 292개소를 지정하여 전담관리원 69명을 위촉하여 구역내 식품판매업소 1,429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205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2-5-28>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식품판매업소 관리현황

구 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식품안전보호구역	126	42	25	2	3	16	7	10	5	3	33	20
식품판매업소	603	208	64	17	95	104	75	21	26	19	106	92
전담관리원	13	10	13	2	4	4	2	2	2	4	8	5

(2)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관리

학교주변의 분식점, 슈퍼, 문구사 등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계도·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300원이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429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총 1,22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전담관리원 69명에게 1일 4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민·관 합동단속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학교주변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조사기간을 통하여 지도·단속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높였으며 초중고생 영양교육, 식생활 안전교육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앞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공동추진을 위하여 도·교육청, 학부모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여 저해식품 판매금지, 미끼상품 광고 금지 등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자 한다.

라. 향후 발전방안

도민들의 소득수준의 향상 및 주5일제 근무환경 조성으로 관광, 레저 등 여가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음식업소의 관광 상품화 및 브랜드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맛·청결·친절 서비스 개선의 욕구가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식문화의 증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집단식중독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및 위생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될 전망이다. 이므로 비상근무체계 확립, 역학조사반 활동, 보고체제 강화로 식중독 발생의 최소화에 집중할 것이다.

한편, 어린이들의 과잉 영양섭취 및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생활 습관병을 개선하기 위하여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생활 개선, 식생활안전관리 교육 강화· 교육·홍보, 학교주변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집중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자 :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 김낙주 / ☎ 220-3161

2. 식품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가.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1)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

집단 식중독 발생의 40%정도가 3~9월경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학교급식소, 뷔페·대형음식점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다. 도내 취약지역은 집단급식소 1,474개소, 도시락류 제조업소 16개소, 뷔페·대형음식점 등 432개소 등 총 1,922개소에 대하여 청결상태, 개인위생관리, 보존식(144시간) 보관상태, 위생적취급기준 등 집중 점검한 결과 시설기준위반 2개소, 건강진단 미필 2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개소 등 8개소를 적발하여 시설개수명령 2개소 및 6개소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며 음용수, 칼, 도마, 행주 등 4,569건에 대하여 세균 및 식중독균 수거검사를 하였다.

(2) 계절별 유통 성수식품 특별지도·점검

유통식품은 계절별로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품을 적기에 관리함으로써 성수식품에 대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시기별 점검 대상은 설·추석대비 제수용품 및 상습위반 유전자 재조합식품 제조·판매업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의 초콜릿류, 사탕류 제조·판매업소, 여름철 병과류, 횃집, 김장철 농산물 및 젓갈류·고추가루류 제조·판매업소, 어묵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총 2,27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15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표 2-5-29> 계절별 성수식품 위반 및 조치현황

점검업소 수	위반업소 수	위반내용					조치내용			
		표시기준 위반	보관기준 위반	유통기한 위반	자가품질 위반	기타	영업정지	품목정지	과태료	시정기타
2,272	115	29	4	6	5	71	28	5	45	37

(3)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과 유통 중인 농산물(엽경채소류)의 잔류농약검사를 통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지대 충족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 목표는 2,900건으로 특별관리대상식품 230품목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관한 200대 품목 그리고 매월 대형유통식품판매점에서 출하 전 농산물 신속 수거검사 등 총 3,677건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산화황 기준초과 2건, 잔류농약 기준초과 5건, 산가 기준초과 1건, 세균·대장균 부적합 3건, 요오드가 등 기타 5건이 부적합되어 영업정지 3개소, 품목제조정지 4개소, 기타 시정명령 9개소에 대하여 부적합제품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도민과 함께하는 식품위생 개선

(1) 민·관 합동 유통식품 감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총 270명(도 30명, 시·군 240명)을 위촉하여 위생점검 지원, 유통식품 위반사항 신고, 계몽·홍보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민·관 합동 점검은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점검 및 식품접객업소 등 불법영업 단속을 매월 1회씩 실시하였고 기타 계절별 성수식품 및 특별단속에도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민·관 합동점검 참여시 1일 40,000원씩 감시활동비를 지급하여 최소한의 보상적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연인원 2,027명이 참여하여 24회에 걸쳐 9,136개소를 점검하여 81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표 2-5-3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민·관 합동점검 결과

점검 업소 수	위반 업소 수	위반내용			조치내용			
		표시기준 위 반	유통기한 위 반	기 타	영업 정지	품목 정지	과태료	시정 기타
9,136	81	38	15	28	16	8	15	42

(2) 시·군간 교차 합동 위생 점검

기관별 정보공유와 점검의 효율성 극대화,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군 교차 합동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는 단속요원의 인력부족과 점검업소의 과다로 인하여 자체 단속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단

속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주로 학교급식소 및 식자재공급업소,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청소년 수련시설, 도시락제조업소 등 대형 식중독발생 우려업소가 대상이며 무허가식품, 유통기한 허위표시, 식품취급위반, 개인위생, 시설기준위반 등을 점검하였으며 총 801개소를 점검하여 표시기준위반 14건, 보관기준위반 4건, 유통기한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위반 5건, 기타 44건 등 총 71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22개소, 품목제조정지 2개소, 과태료 34개소, 기타 1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표 2-5-31> 시·군 교차 합동 위생점검 결과

점검 업소 수	위반 업소 수	위반내용				조치내용			
		표시 기준 위반	유통 기한 위반	자가 품질 위반	기타	영업 정지	품목 정지	과태료	시정 기타
801	71	14	4	5	48	22	2	34	13

(3)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점검위주의 위생행정에서 탈피하여 관련법령의 사전 예고 등 주민 친화적 위생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예고를 하였다. 예고방법은 수질검사 주기도래 1개월 전 전화, 서면, E-mail 등을 통하여 해당 업소별로 통지하고 있으며 검사항목, 채수요령, 검사기관 등을 공지하였고 수질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4)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사회의 다변화와 외식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행정기관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간에는 담당부서, 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는 물론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1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금년에는 총 307건이 접수되어 109건에 대하여는 위반행위가 명백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고 198건은 허위신고 또는 제외대상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홍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제 2 편
제 5 장

다.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제고

(1) 공중위생 영업자 친절서비스 교육 및 지도·점검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손님맞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결·친절 교육을 통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영업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대상은 숙박업소 998개소, 이용업 742개소, 목욕장업 227개소, 미용업 1,809개소, 위생관리용역업 31개소, 세탁업 200개소, 위생처리업 30개소 등 총 4,037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신기술 도입 및 위생수준 향상, 깨끗하고 친절한 손님맞이 관광 인프라 구축, 경영마인드에 대하여 교육을 시켰으며

또한, 공중위생업소 시설기준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숙박업소 812개소, 이용업 742개소, 목욕장업 127개소, 미용업 1,419개소, 세탁업 100개소 등 총 3,20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시설기준위반,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시간외청소년출입 위반 등 9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2) 도민 참여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민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57명(도 4, 시·군 5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였다. 위촉기간은 2년이며 자격은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소비자단체, 대한주부클럽,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 중에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였으며 주요 활동은 매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에 참여하여 감시활동을 펼쳤으며 점검실적은 81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3) 공중위생업 서비스 평가

공중위생업소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기준은 공중위생영업 법적 준수사항 평가, 소독장비 및 청결상태 등 권장사항을 바탕으로 공중위생업소 6,100개소를 대상으로 최우수업소는 녹색등급, 우수업소는 황색등급, 일반관리 대상업소는 백색등급 등 3등급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라. 향후 발전방안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외식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위생

업소의 급격한 증가로 행정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보 수집, 홍보·계몽활동,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자 :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 김낙주 / ☎ 220-3161

식품의약품안전과 식품안전팀 신송희 / ☎ 220-3171

3. 지역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

가. 충북 향토음식 개발 육성

(1) 친환경 명품향토음식 개발 육성 및 향토음식거리 조성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전통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표준조리법 등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친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명품 향토음식 23개 품목을 선정하여 보급하였으며

특히 23개 품목 중에서 집중화된 장소 4개소를 향토음식거리로 조성하여 상징조형물, 메인간판, 음식 유래비 설치, 아름다운 간판 달아주기, 주방용품 지원 등을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표 2-5-32> 명품향토음식 23개 품목 지정

구분	청주시(4)	충주시(2)	제천시(1)	청원군(2)	보은군(2)	옥천군(2)
음식명	청주한정식 삼겹살, 해장국, 올갱이국	평요리, 민물고기회	한방약초음식	오리 한방탕, 도리뱅뱅이	대추산채 비빔밥정식 대추순대	생선국수, 올갱이국밥
구분	영동군(2)	증평군(1)	진천군(2)	괴산군(2)	음성군(1)	단양군(2)
음식명	올갱이국, 어죽	인삼 박창순대	붕어찜, 생거진 천 화랑밥상	민물매운탕, 올갱이해장국	토종 녹두닭백숙	마늘술정식, 쏘가리매운탕

<도내 향토음식거리 지정현황>

붕어찜거리(진천 초평 '07년 완료), 평요리거리(충주 수안보 '09년 완료)
매운탕거리(괴산 괴강 '10년 완료), 쏘가리거리(단양 '11년 완료)

(2) 우수·모범업소 육성 및 대물림업소 지정·육성

음식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생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을 통하여 맛·칭

결·친절 서비스를 개선하는 업소 191개소를 「우수·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위생용품구입비 지원, 현관 제공,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한편 「충북의 맛」 등 홍보 책자에 게재하여 관광 명소화 및 브랜드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2대에 걸쳐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을 발굴하여 맛의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표 2-5-33> 우수·모범업소 및 대물림업소 지정현황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우수	191	27	28	20	13	12	12	12	8	18	13	12	18
대물림	40	13	4	2	2	6	2	1	-	5	1	2	3

나. 식품업소 시설개선 및 경쟁력 제고

식품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화장실개선 용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원 이내, 화장실 개선비는 1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3.0%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절차는 시·군의 심의 결정 후 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시설개선 용자 15건 630백만원과 화장실개선 14건 130백만원을 용자 지원하였으며 또한, 일반음식점에 1개소 당 최대 500천원까지 관련 화장실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기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다. HACCP(안전식품 인증기준) 지정업체 육성

식중독 사고의 증가, 멜라민 파동 등 부정·불량식품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식품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을 위하여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여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HACCP) 제도를 활성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HACCP 적용업소에는 시설개선자금 용자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기술 상담, 교육훈련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산업진흥원 HACCP 지원 사업단 무료 전문기술상담, 충북 테크노파크 기업방문 맞춤형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는 82개 지정업체와 110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5-34> HACCP 지정업체 및 지정품목 현황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지정 업체	82	4	7	8	4	2	7	2	3	15	3	27	-
지정 품목	110	8	8	9	8	2	9	3	5	18	3	37	-

라. 향후 발전방안

도민들의 의식수준의 향상, 외식문화의 발달, 웰빙식품과 전통음식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 추세가 지속됨으로 이제는 친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보급, 향수가 느껴지는 향토음식거리 조성 등 관광 명품화 및 브랜드화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수·모범업소, 대물림업소, 향토음식거리 조성지역에 대하여는 홍보책자 보급은 물론 인터넷 활용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웹사이트를 통한 블로그 설치로 전국적인 식도락가 유치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토음식경연대회 행사도 청주에 국한된 행사보다는 시·군 지역축제를 연계 활용함으로써 도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 축제의 활성화로 홍보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작성자 :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 김낙주 / ☎ 220-3161

4. 의약품 유통관리 및 한약산업 육성

가. 의약품 등 판매업소 유통관리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근절과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통하여 우수한 의약품 등이 도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및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위반하는 판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도민의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중지의약품 판매행위, 무허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 및 의약품 임의 조제·처방전 임의변경행위 등을 분기별로 집중 감시를 하였다.

또한 시중 유통 중인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의 불량제품 유통근절과 오·남용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하여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고, 중금속 오염 등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한약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약재 판매업소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수입한약재의 규격품 제조·판매 여부 및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도 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표 2-5-35> 의약품 등 판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약 국	의약품 도매상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의료기기
2009	1,287	632	64	34	90	7	460
2010	1,413	622	68	32	82	10	599

<표 2-5-36>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감시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대상 업소	위반 업소	처 분 사 항					
			취소	정지	경고 및 개수명령	과징금 과태료	고발	기타
2009	1,287	30	-	4	11	7	6	2
2010	1,800	25	1	2		1	10	11

나. 의약품 광고 모니터링과 안전관리 교육

의약품 등이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거나 적정한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행위와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을 표시하고 판매하는 행위 근절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였고, 최근 노인과 도심 외곽 주택가 부녀자를 상대로 은밀하게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에서는 2010년부터 충북약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특히 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오·남용 우려가 큰 초·중학생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사용으로 오·남용을 줄이고 가정내 폐의약품의 회수처리 사업 홍보를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도내 학교 및 노인복지시설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교육대상별 관심약물에 대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폐기법 등을 교육시키고 있다.

다. 마약류 관리

최근 통계를 보면 '90년까지 감소되었던 마약류 사범이 다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관광지 및 도심지를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사회 저변층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도민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마약사범 확산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적한 시골마을 등에 양귀비 및 대마 밀 경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양귀비의 개화시기인 5월말~6월초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검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명의 밀 경작자를 적발하였으며, 양귀비 249주를 압류·폐기처분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병·의원등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유통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 32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도를 실시하고 2건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및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예방과 마약류의 위해성 홍보강화를 위하여 지도·점검도 강화하였다.

라. 한약산업 육성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한방 특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천시에 한방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나라 한방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키워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한참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하여 충청도에서는 2008년 제1명의촌과 2010년 제2한방명의촌 조성을 완료 하였고, 2011년~2012년 제3한방명의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0억원중 5억을 제천시에 지원하는 한방의료관광 육성사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한약재의 생산·가공·판매를 통한 국내 한약재의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북 제천시 왕암동 일대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을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방식으로 완공하여 수입한약재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국내 한방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 향후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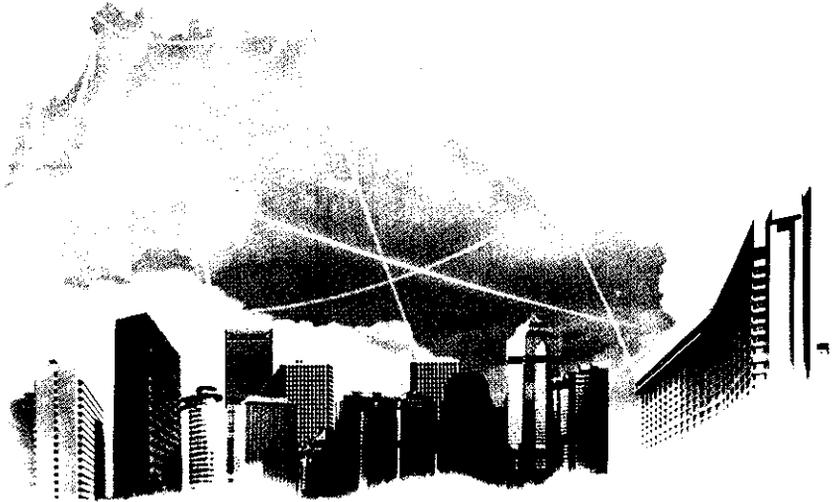
의약품 감시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상시 또는 기획 감시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감시 활동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한 의약품의 유통을 위해 유통 의약품 및 화장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검사기관의 의약품 검사능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문제업소 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식약청과 도 또는 도와 시·군간 교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약품의 유통을 근절해나갈 방침이고, 검·경과의 협조를 통하여 마약류 사범의 근절에 노력함은 물론 단순투약자 및 경미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에 노력하는 등 마약류 사범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성자 : 식품의약품안전과 의약품관리팀 김명숙 / ☎ 220-3181

2010년도

道政白書



제6장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

- 제1절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제2절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
- 제3절 서민일자리 창출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제4절 녹색성장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육성
- 제5절 국제 통상 및 교류활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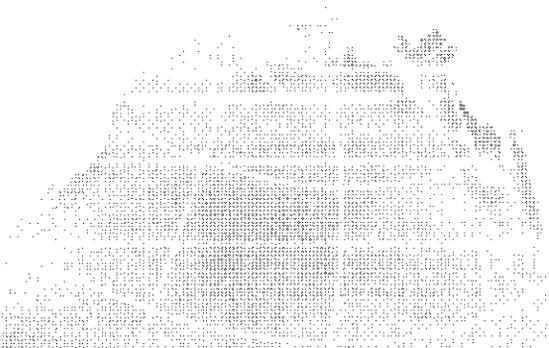
2010년도

道政白書

제1절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1. 지역경제 선진화 기반 조성
2.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
3. 생동감 넘치는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 육성
4. 녹색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1. 지역경제 선진화 기반 조성

가. 추진배경

대한민국 소통과 통합의 중심지로 중부권 경제복합거점 형성을 위하여 세종시, 대덕특구, 인접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를 통하여 X축 경제권역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제마인드 제고와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민경제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충북경제와 지역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경제주체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도내 지역경제동향 및 해외동향을 수록한 월간 충북경제 발간을 통해 지역경제 정보를 제공하여 각 지역 경제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주요성과

(1)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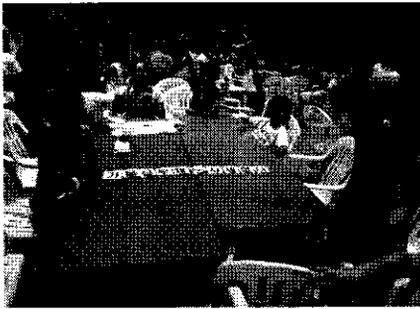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은 2월 대통령의 우리 도 방문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시에 따라 활기를 띠었으며, 5월 초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지경부에 제출하고 5월말에 지경부 관계자 등의 사전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 타 구역 대비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비교 우위

- 개발계획이 수립된 최소 면적 지정으로 국비부담 최소화
- 바이오·솔라밸리 등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여건 우수
- BT·IT·GT 등 융합산업 클러스터화로 세계경쟁력 확보

(2) 범 도민 경제교육 운영

비상하는 충북건설을 위한 범 도민 경제교육으로 충북경제아카데미 4회 850명, 워크숍 2회 102명을 실시하였고, 도민경제교실로 여성·주부, 노동자, 노인, 학부모, 상설교육, 전문강사, 교사, 다문화가정, 시민단체 등 9개 부문에 1,179명을 교육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은 방문(강의, 체험), 전통시장체험캠프, 유아경제교육, 경제캠프 등 5개 부문에 10,085명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사 경제교육 직무연수도 2회 81명을 실시하였다.



(어린이 경제교육 - 강의)



(어린이 경제교육 - 전통시장 체험)

(3) 경제주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도내 지역경제 기관·단체의 주요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인차 역할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목요경제회의를 8회 개최하였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을 예측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월례세미나를 10회 개최하였으며, 회원에 대한 최신경제 정보를 주 1회 제공하였고, 권역별 세미나를 1회 개최하여 충북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충청권경제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각 1회 개최하여 충청권경제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15회 전국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재천에서 개최하여 충북의 지역경제 우수사례를 홍보하였다.



(목요경제 회의 9월)



(충북경제포럼 116차(6월) 월례세미나)

(4) 지역경제동향 분석 및 자료 발간

지역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인 충북경기종합지수 발표 12회와 도내 경제 이슈분석인 “2010년 1분기 충북경제동향과 전망”, “충북 1인당 GRDP 3만달러 달성의 과제와 전망”을 발표하였으며, 월간 충북경제발간 12회, 부문별 지역경제동향 12회를 발표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발전방향

오송 바이오밸리·항공정비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충북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안)을 수정·보완 및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확대하여 도민의 경제마인드를 한단계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목요경제회의와 충북경제포럼등을 통한 경제기관·단체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내 주요경제지표를 이용한 지역경기 동향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작성자 : 생활경제과 생활경제팀 심창섭 / ☎ 220-3211

지역경제 선진화 기반 조성

⇒ “지역경제 선진화 기+반조성”을 전략목표로 선정

⇒ 추진성과

-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제출, 지경부 관계자 등 사전 현장 답사 실시
- 충북아카데미 4회 850명, 워크숍 2회 102명,
- 도민경제교실 9개 부문 1,179명,
-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5개 부문 10,085명, 교사경제교육 2회 81명
- 목요경제회의 8회, 경제포럼월례세미나 10회, 최신경제정보 주1회 권역별 세미나 1회, 충청권경제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각 1회, 제15회 전국 지역경제우수사례발표회 개최 1회
- 충북경기종합지수 12회, 경제이슈 분석 2회, 월간 충북경제발간 12회, 부분별 경제동향 12회

⇒ 향후 지역경제 선진화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화 도모

2.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

가. 추진배경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선 5기에서는 “살맛나는 서민경제” 라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지역물가의 상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주권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건전한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였다.

나. 주요성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와 닿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지역물가 관리 시스템을 활용 시·군별 공공요금을 월 1회 비교·공시하여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억제시키는 한편, 물가모니터를 활용한 소비자물가동향 조사를 52회 실시하여 공표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물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도내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지정된 300개 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배부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비자피해 예방 및 주권확립을 위하여 도내 각 시·군에 소비생활센터(29개소), 이동소비생활센터(40회)를 운영하였고, 청소년·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군순회 소비자교육을 14,9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소비자 피해주의 예고제 운영 및 정보 제공은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을 통한 소비자 피해주의 예고를 105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727회, 언론 69회의 소비자 피해사례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권익향상에 기여하였다.

건전한 소비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대부업 운영실태 점검 및 위반행위를 지도·점검하여 대부업체의 법정이자 위반행위 및 채권추심행위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여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 현장

다. 발전방향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향후 계속적인 지방공공요금 모니터링 및 물가모니터를 활용한 생활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물가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물가안정보범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해당 업소는 물론 주변 업소에까지 물가안정의 파급효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는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꾸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의 사전예방에 노력할 것이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도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권익 구제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 생활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김태왕 / ☎ 220-3221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권의 증진 성과

- ⇒ 지역물가관리시스템 활용 시·군별 공공요금 비교공시 : 월 1회
- ⇒ 물가모니터 활용 소비자물가동향 조사·공표 : 52회
- ⇒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 : 300개소
- ⇒ 소비생활센터 (29개소), 이동소비생활센터 (40회) 운영
- ⇒ 청소년·상공인 등 시·군 순회 소비자교육 : 14,927명
- ⇒ 향후 물가모니터링 및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홍보 지속 실시

3. 생동감 넘치는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 육성

가. 추진배경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통시장의 시설개선과 경영혁신지원으로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나. 주요성과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고객편의시설 확보, 전기·가스 등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18시장에 178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조성 및 정비 7개소, 아케이드 3개소, 화장실 2개소, 고객센터 2개소, 전기소방안전시설 3개소, 시장재건축의 5개소 등 23개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민선5기 서민도지사를 표방한 도지사가 직접 전통시장을 매월 방문하여 서민경제탐방, 장보기 등을 실시하는 「전통시장 상인 만나는 날」을 운영하여 상인들을 격려하고 도민의 관심을 전통시장으로 이끌었으며,

전통시장의 잠재고객을 확보하고자 전통시장과 기관·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204개소('09)에서 237('10)개소로 33개 기관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고객유치를 위하여 공동마케팅·특가판매 실시(26회), 관광·축제와 연계한 전통시장투어(5시군 21천여명)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액은 전년도보다 10%증가된 180억원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조직력 강화를 위하여 퇴직인력을 활용한 전담인력을 8시장에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인 200명에게 활성화 시책설명, 전문가 특강, 우수사례 발표 등 상인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세상인 소액대출 운영(17시장 1,745백만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고, 10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충북우수시장박람회를 10. 29~31일까지 3일간 청주체육관광장에서 개최하여 도내 전통시장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8개시장이 참가하여 우리도 전통시장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도 가졌다.

또한 상인대학(5시장), 맞춤형·정보화 등 상인교육(38시장), 시장자문 및 점포지도(8시장), 국내 우수선진시장 견학(3시장, 73명) 등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상인 의식개혁, 경영마인드 제고에 노력하였다

이렇듯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과 상인 의식개혁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더욱 고객 지향적으로 변화된 전통시장의 모습을 민영방송을 통하여 매주1회 홍보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전국 제일의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적극 노력하여 2010년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평가에서 우수시장이 차지하는 비율(A·B등급, 36.9%)이 전국수준(17.4%)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다. 발전방향

충청북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11 및 2012년에 각각 152억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대단위로 연계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을 청주 육거리시장, 성안길상점가, 남주동시장에 걸쳐 2014년까지 125억원을 투입하여 청주중심가의 랜드마크킹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단양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고자 2012년까지 2년간 15억원 내외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3개년 지원계획의 내실있는 추진과 함께 전통시장의 장점을 살린 각종 전통공연, 7080 향수의 영화 등 각종 문화공연, 전통체험, 다양한 마케팅 등을 통하여 고객이 다시 찾는 전통시장으로 전국 제일의 전통시장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작성자 : 생활경제과 전통시장팀 김성식 / ☎ 220-3241

생동감 넘치는 전국 제일의 전통시장 육성

- ⇒ 3개년 종합계획(2011~2013) 수립 및 내실있는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각종 시설, 마케팅, 교육, 자문지도 등 지원
- ⇒ 2010년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평가에서 우수시장(A·B등급) 비율이 16.1%('08) → 36.9%('10)로 2년전 대비 2배이상 상승
- ※ A(매우활발)·B(활발) 등급 : 충북 36.9%, 전국 17.4%

4. 녹색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가. 추진배경

충청북도는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BRICs 등 신흥공업국들의 에너지소비 증가로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과 값싸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나. 주요성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청사에너지 절감목표관리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승용차 요일제 및 5부제 운행,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경차보급 활성화 등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에 솔선 실천하였다.

민간부문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에너지절약 캠페인, 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외 지역 언론 보도,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고 산업체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위하여 연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전력 피크타임 때 의무감축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 노력한 결과 도시가스 보급률이 2008년말 57.49%에서 2010년말 62.40%까지 확대되었으며 향후 2011년말까지 10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2012년 말에는 전국최초로 도내 전 시·군소재지까지 도시가스가 공급하게 된다.

다. 발전방향

충청북도는 2011년에는 1,347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LED 조명등 교체, 단열창호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및 주택 보급, 소수력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보급률을 2016년 67%, 2031년까지 87%를 목표로 확대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구체적으로 2011년 말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10개 시군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미 공급지역 이었던 북부권(단양)과 중부권(괴산), 남부권(보은, 옥천) 읍·면 소재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노력과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가스시설 설치비용 세부 분담기준을 마련, 가스공급 분쟁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매년 합리적인 소비자 요금 산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유치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또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작성자 :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이성원 / ☎ 220-3251

녹색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성과

- ⇒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8년말 57.49%에서 2010년말 62.40%까지 확대
향후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가스시설 설치
비용 세부 분담기준을 마련, 가스공급 분쟁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 ⇒ 녹색에너지 보급노력으로 공공기관 청사에너지 기준년도대비 10%
절감노력

2010년도

道政白書

제2절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

1.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
2. 전국 최고 투자유치 달성
3. 첨단 해외기업 유치
4. 투자협약기업 사후지원관리 강화
5. 유동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6.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1.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

가. 추진배경

농공단지는 1980년대 중반 수입개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농업소득한계론의 대안으로 농공단지개발 등을 통한 획기적인 농외소득원 개발정책으로 농어촌지역에 중소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촌취업 기회를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는 40개소 5,487천㎡에 달하고 3개소 614천㎡를 조성 중에 있다.

산업단지는 기업의 집단화 유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증진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현재 17개소 27,227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보은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36개소 29,325㎡를 조성 중에 있다.

나. 주요성과

(1) 조성중인 농공단지

① 제천 양화 농공단지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일원에 위치한 양화 농공단지는 2009. 9월 농공단지로서 지정 고시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2010. 11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총사업비 13,676백만 원을 투입, 148천㎡의 조성 면적에 조립금속, 전기전자, 식음료 및 제천시의 주력산업인 한방 관련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다.

② 옥천 의료기기 농공단지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일원에 위치한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는 2007. 7월 농공단지로서 지정고시하고 2008. 11월 조성공사를 착공, 14,284백만원을 투입하여 144천㎡의 규모로 2011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으며 2010년 9월에는 농공단지내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를 준공하여 입주업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경영지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③ 피산 발효식품 농공단지

또한 피산군 피산읍 능촌리 일원에 조성예정인 피산 발효식품농공단지는 피산군에서 2009. 12월 지구지정하고 323천㎡에 26,000백만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음식료품, 기타 제조업 등을 유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

(2010.12.31 현재)

시 군	단지명	위 치	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40 개소	5,486,713	156,629		
충주 (4개소)	주 덕	주덕 삼청	155,036	2,264	86 ~ 87	
	가 주	충주 가주	131,208	2,293	87 ~ 88	
	용 탄	충주 용탄	191,799	5,015	89 ~ 90	
	가 금	가금 가흥	248,208	10,805	89~88, 11~13	
제천 (5개소)	봉 양	봉양 주포	133,098	3,265	90 ~ 91	
	금 성	금성 양화	86,023	1,795	88 ~ 89	
	송 학	송학 시곡	90,067	2,340	89 ~ 91	
	고 압	제천 고압	168,073	3,506	89 ~ 91	
청원 (3개소)	강 암	제천 강제	141,776	2,727	87 ~ 88	
	내 수	내수 도원	105,432	1,649	87 ~ 89	
	현 도	현도 죽전	67,937	1,631	87 ~ 88	
보은 (3개소)	부 용	부용 금호	197,372	2,989	87 ~ 88	
	보 은	보은 금굴	70,026	1,500	88 ~ 89	
	장 안	장안 구인	280,879	6,048	90 ~ 92	
옥천 (5개소)	삼 승	삼승 우진	151,014	5,420	94 ~ 97	
	옥 천	옥천 동안	282,235	8,685	89 ~ 90	
	구 일	옥천 구일	132,492	6,064	97 ~ 99	
	동 이	동이 적하	161,029	2,676	87 ~ 88	
영동 (3개소)	청 산	청산 효목	65,390	1,624	88 ~ 89	
	이 원	이원 건진	141,618	6,472	91 ~ 94	
	영 동	영동 계산	70,999	1,494	86 ~ 87	
증평 (2개소)	용 산	용산 백자전	262,352	3,413	87 ~ 88	
	법 화	용산 법화	123,003	4,995	96 ~ 98	
	증 평	증평 용강	89,682	2,125	87 ~ 88	
진천 (7개소)	도 안	도안 광덕	93,210	1,631	86 ~ 87	
	진 천	진천 신정	57,734	844	84 ~ 86	
	덕 산	덕산 한천	91,183	1,402	87 ~ 88	
	초 평	초평 용정	135,664	1,883	87 ~ 88	
	문 백	문백 사양	123,591	6,481	01 ~ 02	전문
	이 월	이월 노원	127,283	5,872	95 ~ 97	
	광혜원	광혜원 죽현	89,721	1,404	87 ~ 89	
이월전기전자	이월 신월	328,523	19,500	04 ~ 08	전문	
피산 (2개소)	피 산	피산 동부	55,065	1,364	88 ~ 89	
	사 리	사리 방축	112,397	1,366	87 ~ 88	
음성 (3개소)	음 성	음성 평곡	67,563	1,073	86 ~ 87	
	금 왕	금왕 내송	139,187	3,061	88 ~ 89	
	삼 성	삼성 상곡	163,072	2,213	86 ~ 88	
단양 (3개소)	대 강	대강 두음	81,518	2,085	89 ~ 89	
	적 성	적성 각기	124,362	4,065	91 ~ 94	
	매 포	매포 상괴	149,892	11,590	05 ~ 09	전문

(3) 조성중인 산업단지

① 제천 제2산업단지

제천시 왕암동 일원에 위치한 제천 제2산업단지는 1,299천㎡의 규모로 1,5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는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 2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 2008년 10월말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단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② 오창 제2산업단지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일원에 조성중인 오창 제2산업단지는 중부권의 첨단 업종을 유치하여 충북의 경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조성하게 되었다.

2008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충북개발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하였으며, 1,390천㎡의 규모로 2009년 3월 착공하고 2010년 3월 분양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산업용지는 100%분양되었고, 2011년 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③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

보은군 장안면 봉비리 일원에 속리산IC와 근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9월 지구 지정하여, 2010년 5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1,233억원을 투자하여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비교적 낙후된 충북 남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옥천 청산산업단지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일원에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옥천 청산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5월 지구 지정하여, 2009년 4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9년 11월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조성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완료 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영동산업단지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일원에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영동산업단지는 2008년 5월 지구 지정하여 2009년 4월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10년 1월 보상을 착수하였고 1,063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완공되면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 증평 2산업단지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계룡건설산업(주)에서 1,311억원을 투자하여 734천㎡규모로 개발중인 증평 2산업단지는 2009년 11월 산업단지 지구 지정하여 실시계획 작성중에 있으며 2011년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증평 산업단지와 연계한 태양광, 바이오산업의 신성장 동력분야 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⑦ 진천 신척산업단지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일원에 충북개발공사에서 2,976억원을 투자하여 1,464천㎡의 규모로 개발 중인 진천 신척 산업단지는 2009년 5월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10년 11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다.

⑧ 원남 산업단지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일원에 조성되는 원남 산업단지는 음성군과 계룡건설등이 SPC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면적은 1,083㎡로 앞으로 2011년까지 1,148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원남 산업단지는 중부권의 급증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⑨ 단양신소재 산업단지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에 위치한 단양신소재산업단지는 낙후된 북부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05년 8월 3일 개발계획을 승인 받고 2008년 12월 15일 공사가 착공되어 201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표 2-6-1> 추진 중인 산업단지 현황

(2010. 12. 31 현재)

시군	지구명	면적 (천㎡)	사업비 (억원)	시행 기간	시행자	추진 상황	비고
계	36	29,325	49,216				
국가	1	4,178	738				
	보은	4,178	738	87~11	(주)한화	공사중	
일반	35	25,147	48,478				
청주	청주도시첨단	51	681	02~11	청주시장	공사중	
	테크노폴리스	3,263	12,087	07~15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실시계획중	
충주	충주제4	156	196	08~12	충주시장	보상중	
	충주제3	149	173	97~12	충주시장	공사중	
	녹색패션	294	288	09~11	(주)MIK	공사중	
	충주DH	78	52	09~11	동양메이지외2개사	공사중	
	충주만정	50	17	09~11	(주)충주산업	공사중	
	테크윈시티	251	251	09~11	피엔디개발(주)	공사중	
제천	제천제2	1,299	1,449	06~11	충북개발공사	공사중	
청원	오창제2	1,389	3,084	07~12	충북개발공사	공사중	
	옥산	1,271	1,837	08~11	중부종합개발	공사중	
	오송제2	3,332	7,696	07~15	충북개발공사	실시계획중	
보은	동부	691	1,233	07~12	한국농어촌공사	착공준비중	
	보은첨단	1,484	3,053	07~13	충북개발공사	실시계획중	
옥천	청산	351	469	07~11	옥천군수	공사중	
영동	영동	998	1,063	07~13	영동군수	보상, 사업자선정	
	주곡	149	131	09~11	(주)영동기업	공사중	
증평	증평2	734	1,311	07~11	제룡건설산업(주)	실시계획중	
진천	신척	1,464	2,976	08~12	충북개발공사	공사중	
	문백태홍	36	74	08~11	창영건설	공사중	
	문백금성	116	17	09~12	금성개발	공사중	
	초평은암	123	100	09~11	정일산업개발	공사중	
	문백태락일반	42	139	09~11	스마일테크	착공준비중	
	진천산수	1,310	2,108	08~12	진천군수	법인설립중	
괴산	첨단	936	841	06~13	괴산군수	실시계획중	
	건축자재	855	1,000	07~11	디앤씨글로벌	보상준비중	
	감물가구	439	545	08~11	상일디엠씨	보상준비중	
음성	감곡	1,045	1,586	05~10	(주)동부건설	실시계획중	
	용산	936	1,756	07~12	음성군수	사업자선정중	
	원남	1,084	1,148	07~11	음성군수	공사중	
	육령일반	64	200	09~11	영성산업	공사중	
	중부	148	200	07~12	중부공업단지	실시계획중	
	감곡상우	75	92	08~11	(주)동인	실시계획중	
	음성임대	132	145	09~12	LH공사	실시계획중	
단양	신소재	352	480	04~10	단양군수	공사중	

(4)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2010. 12. 31 현재)

시군	단지명	시행자	면적 (천㎡)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비고
계	계	17지구	27,227	19,225		
청주	청주	청주시	4,099	593	69~89	
충주	충주1	충주시	1,286	220	79~93	
	중원	(주)중원산단	375	590	97~09	
	충주첨단	LH공사	1,992	2,287	03~10	
제천	제천	한국토지공사	1,195	709	94~04	
청원	부용	청원군	565	325	90~95	
	현도	(주)진로	715	635	91~95	
	오창과학	한국토지공사	9,450	5,966	92~01	
	오송	한국토지공사	4,628	5,040	97~08	
증평	증평일반	(주)환경시설관리공사	682	864	04~09	
진천	이월	SKC(주)	283	313	00~06	
음성	대풍	음성군	435	352	92~96	
	이테크	니트공업	135	65	93~00	
	금왕	음성군	571	435	94~05	
	음성하이텍	(주)윈스틸	397	197	92~05	
	맹동임대	음성군	419	634	96~07	

다. 발전방향

충북 산업입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주변 및 세계 경제사업등의 여건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지속적인 적기 공급을 통하여 투자유치의 성과를 증대시키고 권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충북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첨단산업 중심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전략산업 입지에 대한 위치, 공급시기, 자금조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입지실수요 및 각 시군의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고려한 탄력적인 산업용지 공급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적기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성자 : 기업유치지원과 입지지원팀 임헌동 / ☎ 220-3331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성과

- ⇒ 산업단지 조성 : 741개 기업 입주, 일자리 47,353개 창출
- ⇒ 농공단지 조성 : 397개 기업 입주, 일자리 15,994개 창출

2. 전국 최고 투자유치 달성

가. 추진배경

민선5기에 기업 유치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자 투자유치 촉진기반을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 제공으로 전국 최고의 매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충청북도 투자유치센터 운영, 국내외 기업투자환경 설명회 및 찾아가는 소규모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주요성과

(1) 투자유치 성과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결과 2010년에는 24개 기업, 4조 9,119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표 2-6-2> 2010년 투자유치 현황

(단위 : 억원, '10.12.31일 기준)

업 체 수	유치금액	고용창출
24개	49,119억원	9,602명

투자유치 금액 중 90.4%인 4조4,441억 원은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등 우리도 4대 전략산업에 투자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투자 유치한 24개 기업, 4조 9,119억원이 계획대로 투자완료가 되면 지역에 인구 유입, 지방세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과들은 충북이 국토의 중심에서 국가 신성장 동력의 경제중심지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정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대위업으로 평가된다.

투자협약 체결식



(2)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

기존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30~40개월 소요되어 산업입지의 적기공급이 어려웠고 이는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한편, 산업단지 조기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1년 내지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시행하였다.

특히 2009. 7. 1일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투자 활성화 부문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타 자치단체에 비해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했음은 물론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실적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정부주도로 육성하는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 산업이 우리도 4대 전략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녹색기술 산업 위주로 투자를 유치해 오고 있어 태양광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을 위한 태양광 특구를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신 성장 동력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고부가 서비스 산업도 유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정비 완료하여 저탄소 녹색기술 산업을 충북의 청정 이미지와 접목시켜 충북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공격적인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

투자유치 전초기지인 「충청북도 투자유치센터」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도 4대전략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업체를 타깃으로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투자를 상담하는 등 현장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발전주간행사에 참가하여 홍보부스 운영 및 투자 상담, 성공사례 발표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규모 찾아가는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KTX,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대한민국 투자 1번지 충북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도에 (주)LG화학, 한화L&C(주), (주)세아특수강, 현대아반시스 등 24개 기업 4조 9,119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2-6-3> 2010년도 지역발전주간행사 결과

기 간	장 소	실 적
'10.9.15~9.17(3일)	대구 EX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홍보관 운영 : 3,000명 방문 (투자환경 소개) ○ 외국인 투자상담 : 9개 기업 ○ 성공사례 발표대회 참가 : 최우수상 수상 (증평군, 신성홀딩스)

2010년 지역발전주간행사



(4) 수도권 및 타시도 기업 이전

2010년에는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이전한 기업이 총 20개사(수도권 16, 타 시·도 4)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금융 불안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여 진다.

<표 2-6-4>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시·군별 현황(2009)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20 (100%)	1 (5)	7 (35)	6 (30)	0 (-)	1 (5)	0 (0)	0 (-)	1 (5)	0 (0)	1 (5)	3 (15)	0 (0)

다. 발전방향

앞으로 권역별, 투자유치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4대 전략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집중 유치할 뿐 아니라 국내외 투자유치자문단 정비·인문화를 접목한 감성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여 일류기업과 중소기업 유치를 계획이다.

또한 우리도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하여 브로셔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각종 언론과 KTX 등 홍보매체에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작성자 : 기업유치지원과 투자정책팀 김선호 / ☎ 220-3311

투자유치활동 성과

⇒ 투자유치 : 24개 업체

투자금액 49,119억원, 고용인원 9,602명

⇒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업 현황 : 20개 업체

3. 첨단 해외기업 유치

가. 추진배경

우리 도는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 융합부품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첨단기업 유치를 통하여 핵심원천 기술의 이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용창출 등을 이루고자 전략산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집적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806천㎡의 외국인투자 지역을 조성하여 일본의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 JSR 마이크로 코리아, 린텍코리아, 엘지토스텝비엠, SFC, 미국의 보그워너 TTS, 캐나다의 한라스택폴, 프랑스의 현대아반시스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및 자동차 부품 분야, 이차전지 등 세계 우수 기업을 유치하였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 투자사절단을 파견하여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기업 방문 IR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주요성과

'10년도에는 도내에 총 40건 199,784천불의 외국인투자가 신고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도내의 외국인투자 총규모는 914건 5,262,835천불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을 비롯하여, 스위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우리도의 전략산업인 바이오·태양광·항공MRO 등 우수한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다수의 잠재 유망기업을 방문 하는 등 유수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0년에는 일본의 엘지토스텝비엠, 에스에프씨, 프랑스 생고방과 현대중공업의 합작사인 현대아반시스와 MOU를 체결, 오창 외국인투자 지역에 입주 하였는데, 특히 현대아반시스는 투자금액이 8억불, 예상고용인원 1,000여 명으로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투자환경 설명회



다. 발전방향

향후에도 기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증액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 도 전략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투자유치 분야도 기존 제조업뿐만 아니라 차세대 성장산업인 바이오, 솔라, 항공 MRO 등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다양화 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오창,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외국인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 외국인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고용창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오송 지역에는 해외 바이오 선도 기업을 유치, 지역발전 성장 동력의 메카로 집중 육성할 것이며, 오창 외국인투자지역은 잔여 부지가 소진되어감에 따라 IT분야 외국인 투자 수요에 대비하여 다른 산업단지 등에 외국인 투자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전략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표 2-6-5> 오창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현황

기업명		면적 (㎡)	투자금액 (백만불)	생산품	비고
합계		805,954.8	1,903		
오창 (1차) 165,290㎡	JSR마이크로 코리아(일본)	52,800	39	LCD 소재	
	MTM옵틱스 (일본)	19,800	4	LCD 부품	
	유텍미디어 코리아(대만)	19,960	20	DVD DISC	
	스탬코 (일본)	72,730	135	LCD 부품	
오창 (2차) 330,580㎡	보그워너TTS 오창(미국)	33,000.3	10	자동차 부품	
	란텍코리아 (일본)	49,600.9	40	반도체 부품	
	더블유스코프 코리아(일본)	76,000	37	LCD 소재	
	한라스텍폴 (캐나다)	39,600	60	자동차 부품	
	LG토스탬BM (일본)	35,000	15	건축 자재	
	SFC (일본)	30,000.4	30	OLED	
	현대아반시스 (프랑스)	67,378.4	300	박막형 태양전지	
오창 (3차) 310,084.8 ㎡	현대아반시스 (프랑스)	145,311.5	500	박막형 태양전지	
	AGC디스플레이 클라스 오창(일본)	164,773.3	713	LCD 유리기판	

작성자 : 기업유치지원과 외자유치팀 맹경재 / ☎ 220-3231

첨단 해외기업 유치 성과

⇒ MOU체결기업 : 3개업체

· 투자금액 854백만불, 예상고용인원 1,170명

4. 투자협약기업 사후지원관리 강화

가.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투자협약한 기업의 수도권 U턴 가능성 및 투자 철회 등이 우려됨에 따라 투자협약기업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나. 주요성과

도에서는 투자협약기업의 투자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매달 모니터링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신속한 인허가 처리, 주민민원 해결 등 공장이 준공되어 원만히 가동될 수 있도록 기업밀착형 사후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기업 현장투어 실시 등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인 기업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각종 지원시책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인을 예우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이 결과 2010년 투자협약을 체결한 24개 기업 중 67%인 16개 기업이 공장 준공 및 공사 중이며, 설계 중 4개, 입주준비 4개로 대부분의 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다. 발전방향

향후 투자유치사후관리시스템을 정확히 입력·관리하고 현지 확인하여 투자협약기업 등 도내 입주기업의 투자상황을 파악하는 등 사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성자 : 기업유치지원과 투자정책팀 김선호 / ☎ 220-3311

투자협약기업 사후지원관리 성과

- ⇒ 공장준공 : 5개 업체 (21%)
- ⇒ 공사 중 : 11개 업체 (46%)

5. 유동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가. 추진배경

우량 중소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과 기술 집약화 등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21세기 신기술 시대를 주도할 첨단 벤처·기술우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도내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자금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 및 청년 창업자 지원,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201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은행협약 자금,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으로 2,308개 업체 2,230억원을 지원하였다.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과 기술 집약화 등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용자대상은 충청북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제조업 전 업종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중 제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희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 지식기반서비스업,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승인사업자 등이며,
- 용자조건은 대상 업체별로 10억원 한도이며, 대출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금리-0.83%)로 상환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010년도에는 171업체에 1,100억원을 지원 결정하였다.

<표 2-6-6>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업 체 수	2,798	1,831	156	132	317	191	171
지 원 액	1,509,306	900,764	93,632	88,115	206,534	110,244	110,017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1981년부터 운전자 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융자조건은 업체등급별 자율금리에서 2%를 감한 금리로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되고, 저리 지원에 따른 이차차액 2%는 도비에서 보전하여 주고 있다. 2010년에는 157개업체 429억원을 지원결정하였다.

<표 2-6-7>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업 체 수	5,100	4,259	125	169	215	175	157
지 원 액	698,212	512,766	21,370	30,054	40,892	51,040	42,090

(3) 벤처·기술우수기업 자금

- 21세기 신기술 시대를 주도할 첨단 벤처·기술우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나아가 거시적 차원의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술우수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융자대상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대상 기업으로,
 -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정)
 - * 우량 중소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등이며
- 융자조건은 대상 업체별로 3억원 한도로 시설자금 3억원, 운전자금 2억원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3.0%로서 상환기간은 시설자금 5년, 운전자금 2년으로 2010년도에는 59개 업체에 110억원을 지원 결정하였다.

<표 2-6-8> 벤처·기술우수기업 자금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업 체 수	543	290	47	40	56	51	59
지 원 액	104,849	54,968	9,355	8,216	11,230	10,050	11,030

(4) 특별경영안정자금

- 여성 중소기업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별로 1억원 한도이며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이다. 용자 금리는 은행자율금리 - 2.5%로 2010년 18개 업체 17.5억원을 지원하였다.

(5) 소상공인 육성지원 자금

-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도내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2007년부터 신설 지원하고 있다.
-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및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이다.

<표 2-6-9>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업 체 수	4,746	508	1,083	1,372	1,783
지 원 액	133,399	13,979	32,061	37,940	49,419

(6) 중소기업 공제기금 지원사업

-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부도어음, 어음수표) 등을 위하여 지원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이차보전 형식(1~2%)으로 지원하고 있다.
- 2009년 47개 업체 51억원, 2010년 120개 업체 87억여원을 지원하였다.

(7) 창업 및 여성기업 지원 강화

충북도내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에게 벤처창업스쿨, 인터넷쇼핑몰 강좌 등 3개 과정을 통하여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 하고, 13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여 센터내 창업공간 및 입주한 기업들을 위해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과 함께 창업초기의 중소제조업체의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 8월 8일 제정으로 여성 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여성기업 자금 지원,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 기술지원, 여성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창업 및 여성기업 지원 강화에 노력해 나가고 있다.

다. 발전방향

세계경제위기와 FTA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 상황에 대처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창업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기업 우대 정책 지속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성자 : 기업유치지원과 기업지원팀 유동준 / ☎ 220-3321

중소기업 지원 성과

- ⇒ 2010년도내 2,308개 업체 2,2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 ⇒ 특히,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자금, 판로 및 기술지원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도내 여성기업의 자생력 제고

6.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가. 추진배경

도내에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업체별 지원 서비스도 차별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수요자 중심의 제품 관로 지원과 업종별 지역별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다양한 기업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기업지원 기업지원정보를 통합 제공을 위하여 'e-기업사랑센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인의 날 운영, 중소기업대상 시상, 향토기업인 인증 등을 통하여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기업인 예우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나. 제조업체 현황

2010년 말 현재 우리 도의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총 7,034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이 6,974개 업체로서 전체기업의 98.5%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60개에 38,216명, 중소기업에 138,995명이 종사하여 전체근로자는 177,211명이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표 2-6-10> 도내 제조업체 현황 (2010 총북제조업체 총람)

(단위 : 개/명)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감 ('05'10)
업체(개)	5,619	5,825	6,142	6,362	6,680	7,034	254
종업원(명)	138,783	140,086	141,669	144,359	170,288	177,211	7,303
증감율 (%)	업체	1.9	3.7	5.4	3.6	5.0	4.2
	종업원	4.0	0.9	1.1	1.8	18	4.1

다. 주요성과

(1) 효율적인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

충북도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2010 충북중소기업대전' 개최하여 유망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 70개 업체, 대형유통점 초청 구매상담회 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판로지원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21업체, 중소기업우수제품전시판매장 운영을 통하여 도내 60업체 600개품목에 대한 판매를 지원하여 제품판로와 홍보지원을 강화하였다.

(2)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문화 정착

① '기업인의 날' 운영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기업사랑과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10월 넷째 주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10년 10월 26일 제4회 기업인의 날 행사는 청주 라마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도내 기업인, 경제관련 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등의 시상식과 함께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의 성공사례 발표,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② 중소기업대상 시상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중소기업대상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10월 종합대상 1개 업체, 경영·기술·수출·노사화합 부문별 대상 4개 업체, 특별상 2개 업체, 총 7개 업체에 대해 시상하였으며, 도내 우수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인예우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③ 향토기업인 인증

10년 이상의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기업인을 발굴·격려함으로써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6년도부터 향토기업인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작성자 : 기업유치지원과 기업지원팀 유동준 / ☎ 220-3321

주요 성과

⇒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판로지원 및 기업인 우대정책 등을 통하여 매년 도내 입주 제조업체수가 4.2% 이상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도 연 평균 5.0% 증가하고 있다.

* 2010년 도내 입주 제조업체 수는 7,034개로 177천여명이 종사함

⇒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 기업인의 날 운영, 중소기업대상운영, 향토 기업인 인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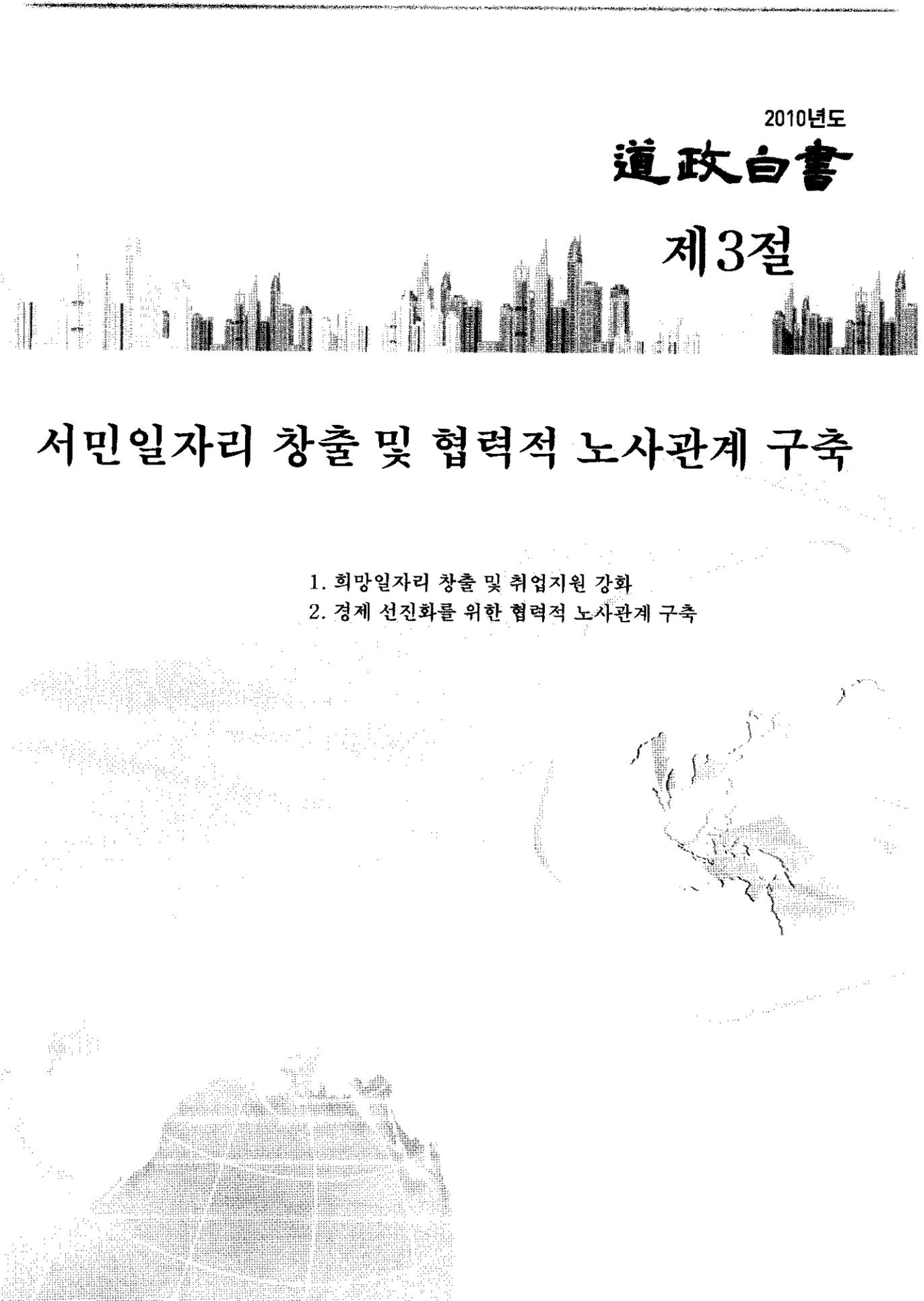
2010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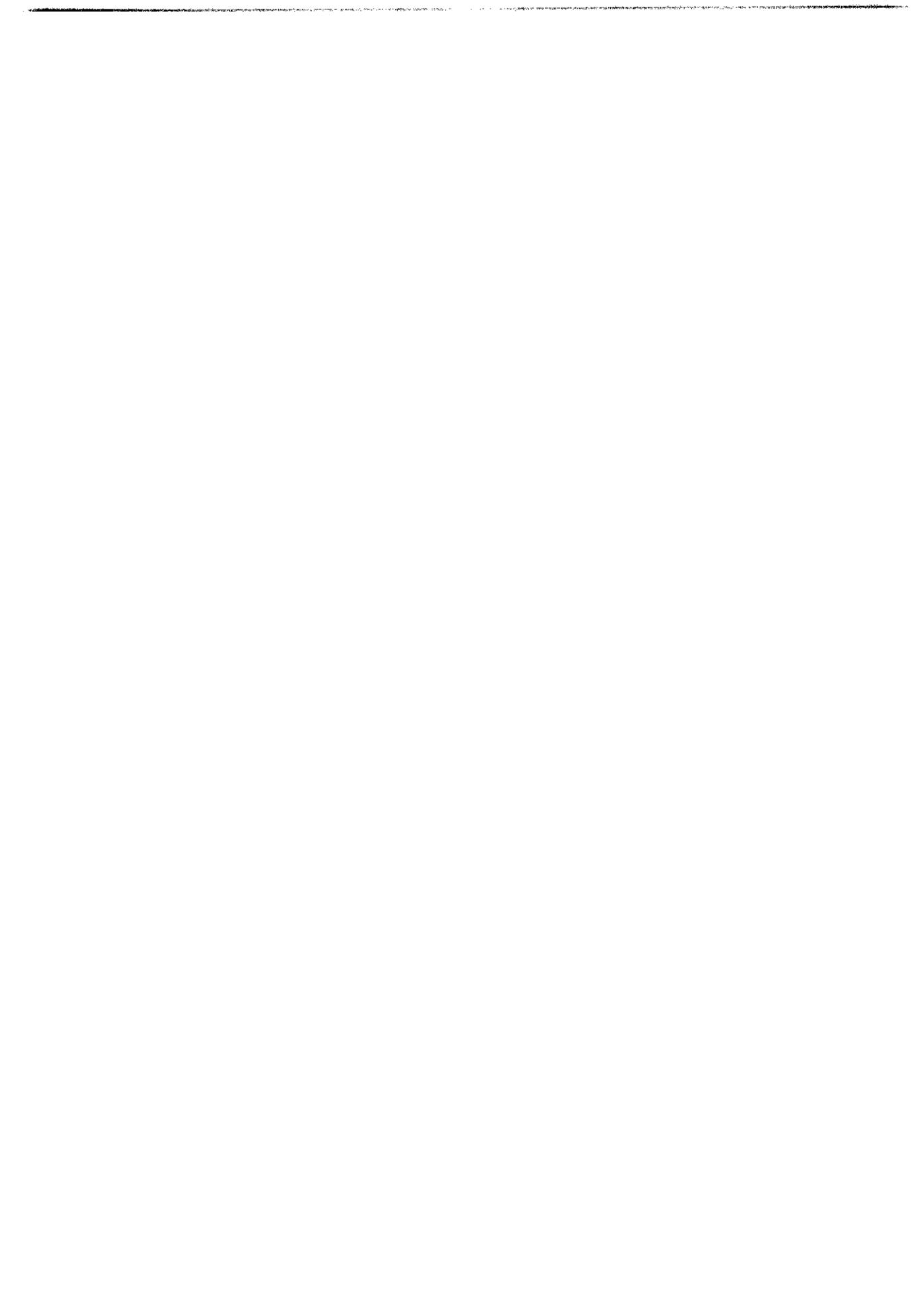
道政白書

제3절

서민일자리 창출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1. 희망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2. 경제 선진화를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1. 희망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가.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통받는 서민의 실업난이 가중되자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금년도 제1의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관계부처와 16개 시·도가 참여하는 '일자리창출 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도 2010년 8월 서민일자리대책을 집중 발굴·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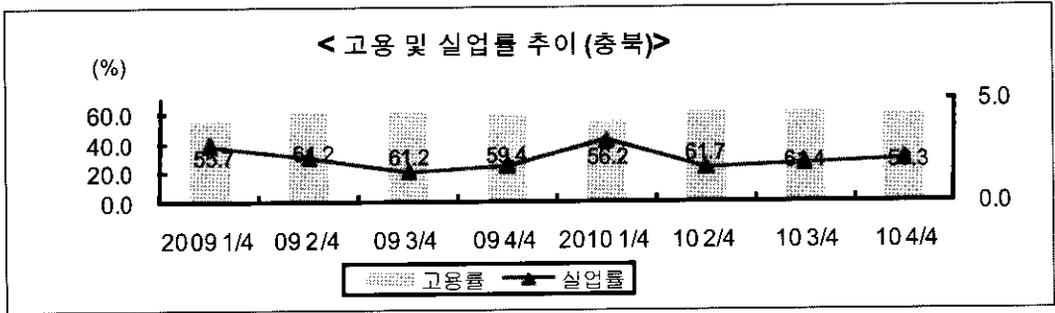
일자리창출 전담 부서인 일자리창출과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 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방면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여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가 다시 회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도내 고용동향

우리 도의 연말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도내 12월 실업자는 1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명(30.2%)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3%로 0.4%p 상승하였다. 이러한 실업자 증가는 일자리사업이 활발했던 8월 실업자가 14천명, 실업률이 1.8%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료에 따른 공공행정 부문에서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도내 취업자는 711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7천명(4.0%) 증가하였는데, 농림어업직에서 19.4% 및 사무직 7.5% 각각 증가하였으며, 임시직은 6.3%, 일용근로자는 6.2% 감소하였으나, 상용근로자가 9% 증가를 보임에 따라 고용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72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1천명(4.5%) 증가하였으며, 남자는 426천명으로 7천명(1.5%), 여자는 301천명으로 17천명(6.0%) 각각 증가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명 감소하였는데, 앞으로 수출·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고용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천명,%,%p)

구 분	'09.12 월	'10.12 월	'09.4/4 분기	'10.4/4 분기	전년동월대비		전년동분기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15세이상 인구	1,227	1,242	1,225	1,241	15	1.2	15	1.3
□ 경제활동인구	697	728	741	752	31	4.5	11	1.4
(참 가 율)	(56.8)	(58.6)	(60.5)	(60.6)	(1.8)	-	(0.1)	-
○ 취 업 자	684	711	728	736	27	4.0	8	1.2
(고 용 률)	(55.7)	(57.2)	(59.4)	(59.3)	(1.5)	-	(-0.1)	-
○ 실 업 자	13	17	14	16	4	30.2	3	18.5
(실 업 률)	(1.9)	(2.3)	(1.8)	(2.1)	(0.4)	-	(0.3)	-
□ 비경제활동인구	530	514	484	489	-16	-3.0	5	1.0

다. 주요성과

(1) 서민일자리창출사업 추진

늘어나는 실업률 해소와 취업난 극복을 위하여 서민일자리창출 및 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2010년 8월까지 추진한 일자리사업이다.

희망근로사업은 12개 시·군에 연중 참여인원 4,000여명이 참여했던 대규모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업비만도 200억원(국비 161억원, 도비 17억원, 시·군비 22억원)이 투입되었다.

희망근로사업은 경제위기하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차상위계층, 경제위기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근로와 연계하여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약 4,000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임금의 일부(30%, 총 117억 원)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전통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양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등 친서민사업(4종), 생산적사업(6종)의 추진을 통하여 도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농번기에는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하고, 수해 시에는 수해복구에 적극 참여하여 도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시적 일자리사업이었던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Post-희망근로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2월까지 시행되었는데, 당초에는 2,000여명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참여대상자를 모집해 선발한 결과, 동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아 이보다 150%가 증가한 3,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 참여자들은 도내 270개 사업장에 배치돼 근무하며, 1일 3만5000원의 급여와 함께 4대 보험 가입,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가 적용되었다.

한시적 생산적 사업유형(4),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유형(4)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에서는 명품 녹색길 조성사업, 지역 향토자원조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특화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52억원으로 재원은 도와 시군의 경상경비 및 축제·행사성 예산 절감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기존에 희망근로사업에 종사했던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승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 인턴근무, 채용알선 등 기업구인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턴제 등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다.

(2) 도내 사회적기업 육성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기업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외환위기가 닥친 1990년대 후반으로, 초기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사회적 기업은 고용창출, 사회서비스 공급, 낙후지역 재생과 같은 부문에서 활동하면서 시민사회 진영의 새로운 실천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우리나라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고, 2009년 5월 제정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충북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14년까지 도내사회적기업 100개 발굴을 목표로 2010년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및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직을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에서는 2010년 10월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하여 8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5~30명 이내의 신규 고용인원 1인당 980천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11월에는 6개업체 34명 22백만원, 12월에는 8개업체 70명 5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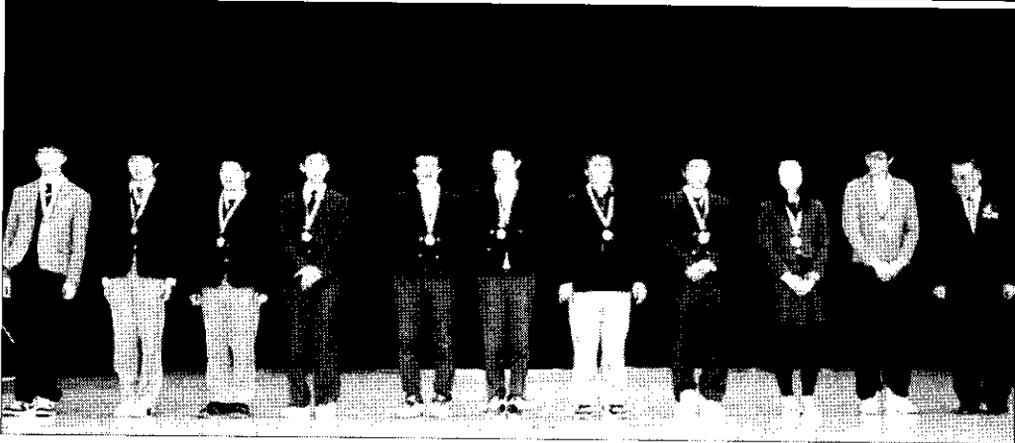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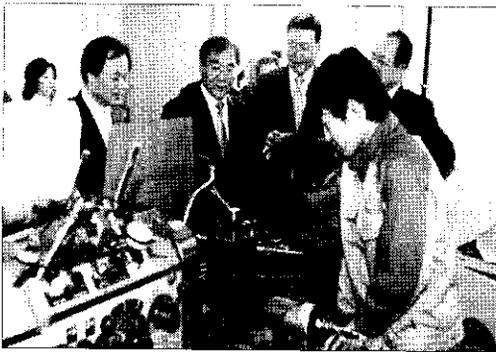
또한 지역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비용 등 재정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9개 시군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23

개소에 54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우리는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미국의 사회적 기업 루비콘 제과 관계자의 말은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써, 충북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점차 확대됨으로써 도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을 사업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여 사회적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 지방기능경기대회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4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청주기계공고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된 2010년 충청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40개 직종 475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각자 평소 같고 닮은 기량을 겨룬 결과 145명(금메달 40, 은메달 40, 동메달 36, 우수 29)이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격려 및 입상자 시상>>

또한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45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3, 은메달 1, 동메달 6, 우수상 6개 및 단체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 1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수기능인 발굴 육성을 위한 2011년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우리 도에 유치하였다.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011년 9월중(6일간) 청주·충주·제천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6개시·도, 선수, 임원 12,000여명이 참여하여 용접 등 48개 직종의 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장 시설확충, 기자재 확보, 대회운영비 등 117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전국단위 기능경기대회 개최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 우수 기능인 양성, 행사 비용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구인구직자 연계사업 추진

도내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일손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인구직자 연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먼저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도차원의 일자리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충청북도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충청북도 일자리 지원센터’는 취업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관계 정보 제공 등 효율적인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문제 해소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구직자 4,971명에게 구직상담을 제공하고 1,129명에게 취업연계를 해주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내 12개 시·군에서도 일자리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취업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외에도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의 기회를, 구인업체에는 우수인력을 발굴·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0월 충북대 개신문화관 및 충주체육관에서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구인업체별 부스운영을 통한 즉석 현장면접 및 전문가 취업컨설팅, 실전 모의면접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0월 20일 충북대에서 개최된 취업박람회에서는 111개 업체가 참가하고 3,000여명의 구직자가 방문하여 694명의 면접을 통하여 261명이 채용되었으며, 10월 28일 충주체육관에서 개최된 취업박람회에서는 105개 업체가 참가하고 1,300여명의 구직자가 방문하여

420명의 면접을 통하여 232명의 채용결과를 내며 성황리에 끝났다.

행사장에는 구인업체 외에도 고용관련 기관단체가 취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안내와 상담 진행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구직자들에게 구인시장 정보와 취업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활력 있는 인력시장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6-11> 취업박람회 개최실적

(단위 : 명/건)

구 분	참 여	가 채 용	비 고
2002	6,107	931	
2003	3,425	600	
2004	2,845	388	
2005	2,234	760	
2006	5,327	580	
2007	4,600	592	
2008	5,221	416	
2009	4,210	494	
2010	4,608	493	

라. 발전방향

올해에는 실업난 가중과 행정기관 주도하의 일자리사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 주도하에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중심의 정책 위주로 일자리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각종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고 조직이 신설되는 등 일자리 추진 조직이나 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일자리창출이 주목되고 확대되는 과제인 만큼 향후 국내외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일자리사업을 축소하고, 안정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항구적인 지역일자리사업의 정착률을 유도하여 장기적인 서민경제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중인 직접 일자리창출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의 조정이나 공통기준 설정 등 체계적인 관리 및 노인·청년 등 참여대상별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을 세분화 하는 등 일자리 참여대상별 사업체계의 전문화·다양화와 중앙부처·지원대상별 각각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기관간 연계 및 정보공유 강화로 좀더 효

울적이고 서민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일자리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총괄팀 전우배 / ☎ 220-3361

일자리창출 추진 성과

⇒ 취약계층 희망일자리 창출

- 희망근로 프로젝트 : 3,835명
- 공공근로 : 정보화사업 등 4종 2,293명
-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3개소
- 일용근로자 무료 새벽급식 지원 : 20천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2,637명, 15,316백만원

⇒ 청년실업 해소 취업프로그램 지원

-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개최 : 3개 권역, 5개 대학
- 기업 맞춤형 인턴제 : 25명
- 취업박람회 개최 : 2회
- 행정인턴제 운영 : 499명

⇒ 기업 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 : 100명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9개 시·군 23개소

⇒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 8개 업체

⇒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 및 우수기능인 양성

-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4월), 전국대회 참가 (9월, 인천)
- 2011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준비

2. 경제 선진화를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가. 추진배경

경제 선진화를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무분규 청정 총복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2회 및 실무협의회를 6회 개최하였고 노사안정을 위한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을 13회에 걸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노사협력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시에는 모범 근로자 37명에 대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여 근로자들을 격려하였으며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근로자 체육대회를 지원, 등반대회와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는 등 노사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참여를 통한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5개 군에 4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별 노사 화합행사 및 노사평화협정 체결을 유도하였다. 또한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 외에 민주노총 충청북도지부의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유도하여 양대 노총과 함께하는 노사평화지대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노총과 협의하여 지사님 접견을 추진,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서로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 발전방향

노사분규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분규가 커지고 확대되기 전에 사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노사분규 없는 무분규 청정총복 실현을 위하여 계속하여 지역 노동관계

의 조정과 다양한 지원 및 협조를 통해 노사민정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노사민정간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2011년도는 복수노조의 정착을 비전으로 기업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추진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과 합리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련하여 노사간 자율결정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 노사협력팀 변영규 / ☎ 220-3391

노사협력 추진 성과

⇒ 노사정포럼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 38회

- 충북노사정포럼 실무추진협의회 6회,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2회
- 노사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4회

⇒ 노사교육 및 연수 지원

- 노사안정을 위한 근로자 방문교육 : 13회 502명
- 신입노조간부 및 노조간부 세미나 : 3회 210명
- 생산현장 근로자 선진국내 산업현장 비교연수 : 제주도 39명
- 노조간부 국외 산업현장 비교연수 : 미국 24명

⇒ 근로자 행사지원

-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모범근로자 표창 : 37명표창, 800명참석
-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 400명 참석

⇒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운영 활성화 : 5개 군 45,000천원

- 지역별 노사 화합행사 및 평화협정체결 유도

2010년도

道政白書

제4절

녹색성장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육성

1.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2.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3.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육성
4. 산학연 협력산업 활성화 및 지식재산보호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



1.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가. 추진배경

정부는 90년대 후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산업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우리 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강한 지방’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단계(’08~’1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2단계 사업의 기본방향은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략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기획-집행-평가 등 사업추진 전(중)과정에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다. 사업내용은 ‘반도체·전자부품과 바이오 중심의 Bio-IT 융합산업 메카 육성’을 사업목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571억원[국비 935(65.1%), 지방비 503(34.9%)]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유형별로는 H/W적 인프라 구축보다는 기술개발, 기업지원 서비스 등 S/W사업에 집중 투입하게 된다.

사업별 5년간 투자계획은 표와 같다.

구 분	합 계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기획단
합 계	1,571.4 (100%)	505.6 (32.2%)	682.9 (43.4%)	86.4 (5.5%)	232.5 (14.8%)	64 (4.1%)
국 비	935.1 (59.5%)	252.8	465.3	60	113	44
지방비	452.6 (28.8%)	252.8	46.9	26.4	106.5	20
민 자	183.7 (11.7%)	-	170.7	-	13	-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인력양성 지원

전략산업분야 현장 기술 인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착형 예비 기술인력 양성 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공동기획 등 5개 산업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수행하였다.

기획 및 모니터링, 수급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로드맵 작성, 전략산업별 현장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취업연계 예비인력양성을 운영 하는 등 주요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2008년 1,140백만원, 2009년 2,160백만원, 2010년 1,41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충북지역의 전략산업분야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내 우수기술 인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연계프로그램은 도내 전문학사, 학사를 대상 인턴십과정을지원하였고, 석·박사 인력에 대하여서는 우수기술인력지역정착을 지원 하여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전략산업 변동추이에 따른 인력수급 체계 구축 및 산업인력양성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업의 효율화를 증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충북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2)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지역 내 지역산업발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에 따라 IT, BT 및 기업경영 분야의 전문연구인력 등을 구성원으로 2003년 2월 「충북전략산업기획단」이 설립되어, 운영하여 왔으며, 2010년 충북TP내 정책기획단으로 조직과 기능이 통합되었다.

충북산업발전 로드맵을 수립 '4대 전략산업 세부특화분야'를 선정 완료 하였으며, 지역특화 IT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기획단은 충북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전략 기획, 산·학·연·관 연계강화 및 R&D협력체계 확립, 산업경쟁력 증대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기반확립, 전략산업의 기술발전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 국제협력체제 구축 및 선진역량의 흡수·활용, 지역 내·외 R&D과제 도출 및 평가, 지역 내 산·학·연 주체의 R&D활성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도 “2010년 충북산업진흥계획 수립” 평가에서 A등급으로 선정되어 4.6억 원의 인센티브를 수혜 받았으며, 충북미래신산업 청사진수립을 통하여 4대 분야 13개 산업을 선정하여 충북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다. 충북 전기전자 융합부품통합기술청사진, 충북 차세대전지산업통합기술청사진, 기초생활권 산업연계활성화전략 수립 등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광역경제권 협력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충북테크노파크 조성

우리 도는 충북테크노파크를 핵심 전략산업인 IT, BT, BIT분야의 종합기술센터로 육성하여 지역기술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2003년부터 2008년 6월까지 4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1단계 하드웨어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 11월 오창 과학 산업단지 내 청사를 착공,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072㎡의 규모로 건립되어 2007년 4월 청사를 준공하였으며, 본부 관, 선도기업관, 스타기업관, 세미나실, 회의실, 이노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03년 12월 1차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국가, 도 및 시·군, 대학, 연구소,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연구, 교육훈련, 창업지원, 장비활용지원 등을 이용한 기업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과 충주대학교, 단양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영동대학교 등에 4개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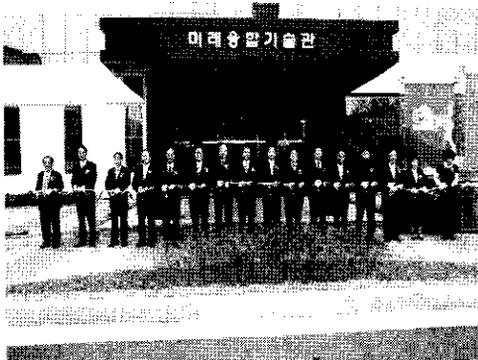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 지역혁신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주체인 (재)충북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과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통합하여 명실 공히 지역기술혁신의 거점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2단 5센터 1실의 조직 체제를 갖추고 통합에 따른 조직의 시너지효과 및 지역특화산업간 융합 개발 등이 가능해졌다.

2007년 7월 전국 최우수 테크노파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가 155개사 4,682건의 분석평가 및 인증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국내는 물론 독일, 미국 등에서 '자동차전장품 및 전자파 인증'을 획득하였고, 전통의약산업센터가 국가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한약재 품질검사 및 제품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9월 기관경영평가 B등급을 받았고, 11월에는 지역산업진흥 종합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의 「지역 거버넌스 정비 실행계획」에 따라 지역거점 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의 기획기능 강화와 전문성 및 기획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략산업기획단'을 '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하고, 지역사업 추진과정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산업평가단'을 TP부설로 설립하게 되어 총원 145명으로 3단 5센터 2실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다.

2010년 사업수행을 통하여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2단계 TP조성사업) S등급(최고등급), 지식서비스사업 A 등급(최고등급)을 받았고 보건의료산업센터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번호:KT458)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더불어 150여억원을 투자하여 충북지역 전략산업인 IT와 BIO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융·복합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 미래융합기술관(연면적 11,053㎡)을 준공하였다.



앞으로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기술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식기반을 촉진시켜 지역산업 성장기반 강화 및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기반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기술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식기반을 촉진시켜 지역산업 성장기반 강화 및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기반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4) 기업지원 펀드 조성

도내에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화 촉진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등 우리도 4대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육성을 위하여 바이오토피아 펀드와 경제특별도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 바이오토피아 펀드 조성 >

2005년 10월 한미창업투자(주)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하고 우리 도에서 출자한 30억원과 업무집행조합원 20억원, 한국벤처투자(주) 50억원, 농협중앙회 10억원 등 총 110억원의 바이오토피아 펀드를 조성하였다

바이오토피아 펀드는 기업의 주식매입과 전환사채, 약정투자 등으로 새로운 벤처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게 되며 3년내 출자금의 100%를 투자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업체방문 등 투자업체 현황 파악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2007년 7개 업체에 투자했으며 2008년 2009년도 각 1개 업체 2010년도에 1개 업체 투자로 총 98억 7천만원을 투자를 종료하였으며, 펀드 지원을 받은 (주)메디톡스와 어보브반도체(주)에서 코스닥 상장되는 등 펀드 자금을 통한 기업지원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는 투자한 기업체의 관리와 원금·수익 등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 경제특별도 펀드 조성 >

그간 110억원 규모의 바이오토피아 펀드를 운용하여 왔으나, 24조 5억원에 이르는 투자유치와 오창, 오송단지 입주기업 및 도내 벤처기업의 증가 등 늘어나는 자금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보다 큰 규모의 경제특별도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다.

2007년 11월 한국기술투자(주)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하고 우리 도에서 출자한 30억원과 업무집행조합원 60억원, 한국벤처투자(주) 60억원, 농협중앙회 30억원, 산업은행 30억 등 총 250억원의 경제특별도 펀드 1호를 조성하여 8개 업체 173억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경제특별도 펀드 2호를 조성하여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보유하고서도 해외네트워크와 글로벌 마케팅,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9개 업체 170억원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1호 펀드 지원을 받은 다산TPS(주)에서 '10. 1월 코스닥 상장되는 등 기업지원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 발전방향

BT산업과 IT산업의 융합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수행, 혁신주도적 지역성장 가능성 제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충북산업 발전비전 제시, 지역 및 주력산업과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바이오, 차세대 전지,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4대 전략산업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인력 양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지역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작성자 : 미래산업과 산업정책팀 이재영 / ☎ 220-3411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 ⇒ 지역전략산업 육성 : 2008 ~ 2012년 1,571억원 투자
- ⇒ 지역인력양성 : 2008년 1,140백만원, 2009년 2,160백만원, 2010년 1,410백만원을 지원
- ⇒ 충북테크노파크 조성 : IT, BT, BIT분야 2003년부터 2008년 6월까지 4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1단계 하드웨어 사업 →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추진
- ⇒ 기업지원 펀드 조성 : 바이 오토피아 펀드 조성, 경제특별도 펀드 조성 등 도내에 우수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

2.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가. 추진배경

지역발전에 필요한 지역의 자율과 창의로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혁신주체인 산학연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 조기구축 및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활동 촉발의 계기 마련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나. 주요성과

(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지원

지역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하여 지역의 자율과 창의로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05년 4월 30일 제천 약초 웰빙 특구가 도내 최초로 특구로 지정받은 이래 2010년까지 10개 시·군에 특구가 지정되었다.

2005년도에 6개 특구가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으로 「제천 약초 웰빙 특구」는 2010년까지 제천시 화산동 일원 1,008,271㎡에 44억원을 투입하여 약초시장 특화, 우수재배관리, 건강축제를 특화하게 되고,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05. 7. 5.)」는 2008년까지 220억원을 투입하여 괴산읍, 문광면 일원 667,766㎡에 청정고추단지, 고추종합처리장, 고추축제 활성화,

「옥천 묘목산업특구('05. 9. 13.)」는 2010년까지 61억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이원면 일원 1,979,748㎡에 묘목생산단지, 테마공원, 가로수식재, 축제 등을 특화내용으로

「옥천 옷산업특구('05. 12. 13.)」는 2015년까지 79억원을 투입하여 옥천군 10개 읍·면지역 794,314㎡에 옷재배, 옷칠랜드, 관광사업 등을 특화내용으로,

「충주사과특구('05. 12. 13.)」 2010년까지 218억원을 투입하여 충주시 7개 면·동 지역 1,537,103㎡에 사과단지, 유통센터 건립, 관광사업 등을 특화내용으로 ,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05. 12. 13.)」 2012년까지 44억원을 투입하여 영동읍, 학산면 일원 880,869㎡에 포도재배, 체험관광, 포도축제 등을 특화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단양군 매포읍 일원 총 494,596㎡에 2010년까지 298억원을 투입하여 신소재 지방 산업단지, 매포농공단지 조성 등을 특화내용으로 하는 「단양석회석산업발전특구('06.3.8.)」, 음성군 맹동면, 대소면 일원 총 635,438㎡에 2009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하여 수박재배단지, 유통센터, 육묘장 설치 등을 특화내용으로 하는 「음성 친환경수박특구('06.6.27.)」 등 2개 특구가 지정되었다.

2007년에는 영동군 일원 4개 지구 422,000㎡에 165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감 생산지구구 조성 및 가공단지 조성, 천연 염색사업 육성, 다양한 과일행사를 통한 지역 축제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영동 감 고을 감 산업 특구('07.4.27.)」,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일원 131,288㎡에 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하여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가 만들어진 흥덕사지 일원을 세계적 기록문화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직지문화상품 개발 및 홍보, 직지역사·문화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청주 직지문화산업특구(07.7.25.)」를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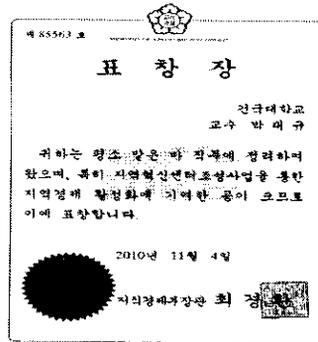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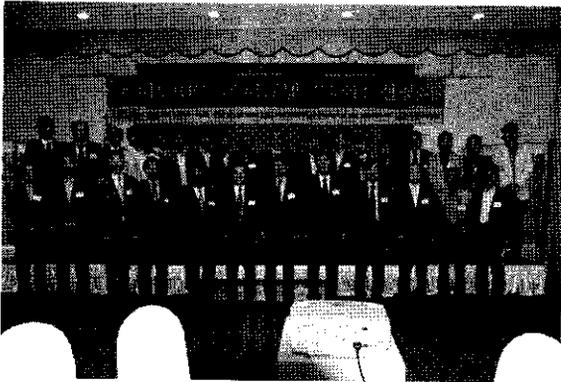
2008년도에는 「제천 에코세라피 특구」,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와 「보은 대추·한우특구」 3개 특구가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제천 약초 웰빙특구」는 2006년에 이어 2008년까지 전국최초 3년 연속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등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모범적인 운영사례에 꼽히고 있다.

「증평 에듀팜 특구」가 '09.10.16 지정되었고, 태양광산업특구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특구산업을 추진하고자 개발 중에 있다.

(2) 지역혁신센터(RIC) 운영

기업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대학에 기업 활용도가 높은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여, 장비활용, 기술개발 및 지도 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합 지원하여 대학-기업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지식경제부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2001년 5월에 선정된 충북대 생물건강산업개발센터와 성과활용중인 청주대학교의 정보통신 연구센터가 사업이 종료되고 현재 서원대학교 친환경바이오소재 및 식품센터를 포함 4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추진 실적으로 특허출원 228건, 논문발표 495건, 장비활용 31,872시간, 인력양성 2,242명, 기술이전 81건, 기술지도 1,764회, 창업지원 97건, 개발기술사업화 123건, 마케팅지원 1,478회, 실적을 보이고 있다.



<건국대학교 바이오 식·의약연구센터 주관 기술이전 설명회 및 지경부장관 표창>

(3) 지역혁신특성화(RIS) 사업 추진

지역 혁신주체인 산학연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 조기구축 및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활동 촉발의 계기 마련을 위해 2004년부터 충북테크노파크의 “신개념 바이오융합기술 산업화”, 영동대학교의 “웰빙 기능성식품 혁신프로젝트”, 단양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친환경 에너지 및 에코소재개발 사업” 등 3년간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세명대학교의 “제천한방산업 육성사업”을 완료하였다.

2007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의 “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BIT육성사업”, 충청대학교의 “생물자원(대추)소재 가공식품 육성사업”, 건국대학교의 “충주 사과 가공진흥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2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충주대 “실용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충주지역 파스너산업 역량강화사업”과 세명대학교의 제천한방산업 육성사업의 성공으로 2단계 포스트 RIS사업으로 연계된 “제천약초 고부가가치화사업”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내 12개 전 시·군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고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발전포럼사업이 14개 사업에 국비 359억원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역혁신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이다.

(4) 충북과학축전 개최

도민의 과학기술 마인드 제고와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전국 처음으로 충북과학기술 발명품전시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의 지방화를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과학기술혁신대전에서 2009년 과학축전에 이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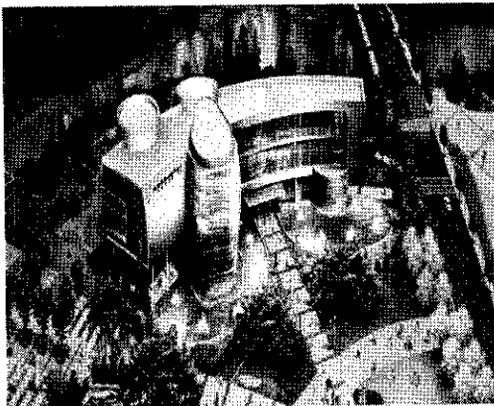
까지 총 14회의 과학기술행사를 개최해 왔다.

2010년에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청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215백만원을 투입하여 원자력에너지관, 신재생에너지관, 산학협력관, 과학홍보관 등 4개관 67개 부스를 설치하여 『생활속의 원자력 체험』이라는 주제관을 운영하여 원자력 발전과 활용기술을 홍보하여 도민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 깊은 기회를 가졌으며, 충북의 4대 전략산업과 산학협력 사업에 대한 성과물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 고조와 과학기술 문화 확산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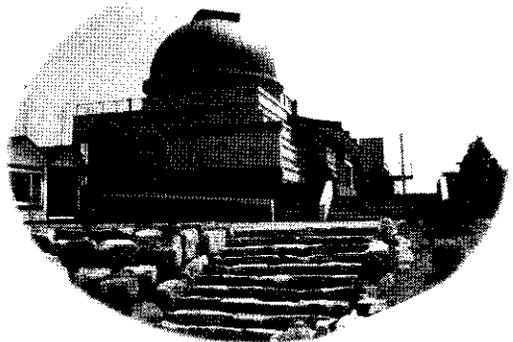
(5) 지방과학관 육성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범도민적 이해 증진에 이바지하여 과학기술 저변확대는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과학관을 중점 육성하였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주제전시관으로 활용할 한방과학관을 제천시 왕암동에 317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10년 6월 준공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과학관시설 확충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10억을 확보하는 등 중부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50억원이 소요되는 증평 좌구산 천문대 건립사업을 진행가고 있으며, 도내에 미등록된 과학관을 발굴·등록시킴으로서(공립 제1호, 공립 제2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제천한방생명과학관 -



-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공립 제2호



(6) 석회석 신소재 공동연구기반 구축

연구기반이 부족한 충북 북부권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석회석 자원을 고기능성·고부가가치화 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석회석 신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2003년 7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 설립되어 2009년 4월까지 5년간 8,168백만 원을 투입하여 석회석 신소재 관련 연구개발과 친환경성 석회석 신소재 산학연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창업보육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10년 현재 14명의 인력과 지식경제부 산업기반기술조성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분석 장비 30여종(X-선 회절분석기, 주사전자현미경 등), 실험기자재 60여종(항온항습기, 몰탈교반기, 소성용 킬른 등)을 석회석 관련기업, 연구기관에서 200여회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개발과제 24건 26,868백만원을 수주하여 전국 유일의 석회석 연구소 위상을 다져가고 있으며 특히 2010년도에는 비금속 광물자원을 활용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이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광역연계협력사업에 선정되어 2010. 07. 01 ~ 2013. 06. 30(34개월)까지 총사업비 113.4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24.4억원, 민자 14억원)을 지원받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주대학교, 한일시멘트(주)가 참여하여 산업공정 배출가스를 활용한 탄산칼슘 합성 상용화공정 확립 및 국내 저탄소산업 활성화, 산업공정 CO₂가스 활용 제지용 탄산칼슘 상용화 제조기술개발, 친환경 제지용 탄산칼슘 무기충전제 제조 원천기술개발 및 실증화, 탄산화 반응용 배출가스 정제 및 공급시스템 개발, 탄산화 반응 공정부산물 재자원화 기술개발 사업 과제를 연구하는 거점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7) 청주산업단지의 생태산업 단지화 추진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자원순환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시켜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염물질, 부산물, 폐열 등을 재로화 및 재활용하여 수요기업의 원료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기업간 「자원순환 네트워크」 이 갖추어진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청주산업단지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85억을 투입하여 생태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청주산업단지는 2006년 2월 생태산업단지 구축 단지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3월 1차년도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에 사업단을 구성하여 총괄과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사업, 산업폐수의 질소제거와 재이용시스템 구축 사업 등 6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07년도의 2차년도와 3차 년도에는 폐산 및 슬러지 재활용 구축사업 등 8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폐수 재이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4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폐질불산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 등 5개 과제를 수행하여 청정생산기반을 조성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21C 미래형산업단지를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청원 오창 과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충북권역 산업단지를 산업과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녹색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충청북도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 발전방향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은 10개 시·군의 이외의 특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혁신주체인 산학연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여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 조기구축 및 산학연이 연계된 지역연고산업 등을 발굴 및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작성자 : 미래산업과 산업정책팀 이재영 / ☎ 220-3411

지역특구사업 거점 육성 및 과학진흥

-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지원 : 10개 시군 특구 운영 및 추진 및 지역 특구사업 발굴
- ⇒ 지역혁신센터(RIC) 운영 및 지역혁신특성화(RIS) 사업 추진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로 지역 발전 거점육성
- ⇒ 지방과학관련 산업 지속적 추진 : 충북과학축전, 지방과학관육성운영 지원, 석회석 신소재 공동연구기반 구축, 청주산업단지의 생태산업 단지화 추진 등 과학발전 기반구축 강화

3.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육성

가. 추진배경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제시하면서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구현의 핵심분야로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그리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저감 그리고 신성장동력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도는 전국 유일의 광역형 태양광산업 특구지정과 더불어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민선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녹색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을 집중육성하고 태양광 시설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1)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표 2-6-12>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10.12.31일 기준)

시군별	마을명	가구수	에너지원별	비고
계	8개마을	215		
충주시(소태)	야곡·가정마을	39	태양광	
제천시(수산)	상천·하천마을	27	태양광	
청원군(낭성)	갈산마을	10	태양광	
보은군(산외)	대원마을	16	태양광	
옥천군(청성)	무회마을	12	태양광	
진천군(덕산)	신평마을	27	태양광	
괴산군(칠성)	미루마을	51	지열	
음성군(맹동)	두성마을	33	태양광, 지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통하여 미래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앞장서 왔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1마을당 10가구가상이면 지식경제부 공모 후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에너지원별 설치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131가구, 지열은 84가구가 각각 설치하였다. 그린빌리지 사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물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국가 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기반 조성에 한 축을 마련하고 있다.

<표 2-6-13>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현황>

('98.1.1-'10.12.31.)

계(개소)	태양열	태양광	폐기물	지열	소수력	복합	기 타	사업비 (백만원)
83	29	38	6	5	2	1	2	30,732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육성 및 보급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에너지원에 따라 태양광, 소수력, 지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에 설치해 나가고 있다. 2010년까지 총 83개소에 307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된다.

<표 2-6-14>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10.12.31일 기준)

설 치 가 구 수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377	5,138	2,873	732	1,383	150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그림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도내에 집중 유치하고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설비의 범도민적 이용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51억을 투자하여 377가구에 설치하였다. 일반주택보급사업은 태양광 보급 확대는 물론 태양광산업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아시아 솔라밸리 총복조성

우리 도는 지리적 접근성이 유리한 교통망의 중심지로 태양광 부품소재의 생산·보급 기지화가 가능하고, 수도권에 인접하여 물류비용감소, 관련산업인 반도체의 인프라가 우수하여 태양광산업을 육성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좋은 조건에 있다.

민선 5기 출범이후 비전2014선포식을 통해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균형발전과 더불어 청주공항 활성화사업을 3+1프로젝트로 정하고 집중 추진하고 있다. 솔라밸리 조성은 충청북도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사업으로 태양광산업을 선정하고 지원기관, 연구기관, 기업들이 집적화 되어 세계적인 태양광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시아 솔라밸리 총복조성을 위해 추진한 태양광 산업 특구가 지난 4.22일 지정됨으로써 솔라밸리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큰 추진동력이 되었다. 이와 함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를 2014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추진 사업중 하나인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또한 태양광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를 위한 국책기관 집적화 사업으로 추진하던 생산기술 연구원이 8월 개소하여 도내 기업에게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태양광기업제품의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기술 연구원 태양광센터를 우리도에 유치하기 위해 협의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기업 집적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을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내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발전방향

충북도가 구상하는 아시아 솔라밸리 총복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체 지원 및 인력양성과 더불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또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태양광 테마파크 조성, 솔라시티 조성 다각적인 생활밀착형 에너지 체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작성자 : 미래산업과 솔라밸리팀 김상규 / ☎ 220-3421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성과

- ⇒ 2010년 총 83개소에 307억원을 투자
-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태양광 주택보급사업, 그린빌리지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등 보급 확대
- ⇒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에 설치 확대
- ⇒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4.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 및 지식재산보호

가. 추진배경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지역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해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지역거점연구단육성, 두뇌 한국(BK)21사업, 산학협력부설연구소 설치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도는 지역대학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성과가 지역산업의 고용 및 기술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각 대학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을 종합지원하는 충북지식재산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지역기업의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조사분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1) 산학협력 확산사업 추진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구축과 산학협력지원체제 개편으로 산업단지 연구개발 지원기능 및 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은 2009년 7월부터 충북대학교와 충청대학교 주관으로 산전정밀 등 12개 업체가 참여하여 2013년 12월까지 54개월간 16,270백만원이 지원되어 산학협력형 대학체제 개편, 고용연계형 인력양성, 산학연계 기업지원, 브랜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 추진으로 교수 업적평가 규정의 산학협력 항목 반영과 특성화학과(기계공학부, 건축공학과) 운영으로 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였고 산학협력으로 기술지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참여한 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이룩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었다.

첨단 BT기술과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 접목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BIT 융합분야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지역산업체 및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지역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BT와 IT융합 전문연구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충북대학교 BIT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단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역거점연

구단 육성사업은 2005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0년간 30,914백만원이 지원되며 바이오정보 및 질병진단시스템 구축,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개발, 바이오 전자소자 및 응용기기 개발을 통해 열악한 지방 연구인프라를 개선 및 고도화 함으로써 2010년에는 SCI(E)급 학술논문 54건 등재, 국내특허 29건 등록, 산업체 기술이전 16건, 고급인력양성 404명, 대형연구장비 15건 도입 및 시설구축 3개소, 산학연관 교류협력 96건, 산업체 기술이전 3건 215백만원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8,183백만원을 투입하여 21세기 지식산업시대 준비를 위한 지역 우수대학원 중심의 고급 연구인력 양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목표로 충북대학교 BK(두뇌한국) 21사업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두뇌한국 21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전국 69개 대학 516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BK21사업 5차년도(2010년) 연차평가 최종 평가결과에서 5차년도 사업을 진행했던 11개사업단 중 정보기술, 응용생명1, 학제간 융합1, 교육/심리분야에서 지역우수사업단으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려 인센티브로 국비 380백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다.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운영

대학의 전문기술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충주대학교, 세명대학교, 건국대학교, 충청대학, 주성대학, 충북과학대학, 대원과학대학, 극동정보대학, 극동대, 한국폴리텍IV청주대학, 청주교육대학교 등 14개 대학과 91개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91개 연구 과제를 선정, 연구 중에 있으며 컨소시엄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5,373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업체부담 25%)을 지원하여 특허 34건, 실용신안 1건, 공정개선 87건, 시제품개발 88건 등 215건의 연구개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2010년 7월 20일 충북 중소기업청에서 13개 대학 모두가 참여하는 「산·학·연 한마음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2009년 우수연구과제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2009년도에는 13개 대학 69개 업체가 참여하여 69개 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에 의거 14개 대학 77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1994년 이후 현재까지 52,239백만원을 지원하여 1,723개 업체가 참여, 1,723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3)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2010년말 현재 도내 벤처기업은 660개 업체로 전국대비 2.7%를 점유(전국 24,645개 업체)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1998년 77개, 1999년 149개, 2000년 225개, 2001년 250개, 2002년 215개였으나 벤처기업확인제도 강화로 2003년 175개 업체로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오창 벤처프라자 건립 등 벤처기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4년 195개, 2005년 224개, 2006년 283개, 2007년 351개, 2008년 368개, 2009년 500개 업체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벤처기업의 지원시책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특허종합정보컨설팅사업 운영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특허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특허정보 사전조사·분석을 통하여 R&D투자 방향 설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006년부터 특허종합정보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특허 종합정보 상담 310건, 출원비용지원 80건, 선행기술조사 80건, IT, BT분야 PM조사 분석 2개 과제, 지역특화사업 PM조사 분석 1개과제 등 기업지원을 하였다. 2007년도에는 국비 2억과 도비 2억 총 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컨설턴트 2명을 전진 배치하여 기술개발에서 권리화·사업화에 이르기까지 One-stop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산업재산권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도내 12개 시·군을 순회방문 상담하여 분야별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2007년 12월말 특허종합정보상담 330건, 출원비용지원 80건, 선행기술조사 120건, 특허기술 평가 자료지원 25건, 특허기술서물레이션제작지원 5건, 특허상품초기홍보물제작지원 6건 등의 기업지원을 하였으며 IT, BT분야의 지역특화사업 중사기업 맞춤형PM조사 분석 10개 과제 수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특허컨설팅 447건, 전문가Pool상담 179건, 선행기술조사 121건, 국내·외 출원비용지원 112건, 맞춤형 PM 10건 및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 운영 5회, 179업체 컨설팅을 수행, 2009년에는 정보 컨설팅 342건, 사업화 컨설팅 115건, 선행기술조사 121건, 출원비용지원 86건, 평가료지원 10건, POOL상담 179건지원, 2010년에는 정보 컨설팅 404건, 사업화 컨설팅 187건, 선행기술조사 108건, 출원비용지원 254건, 평가료지원 10건, POOL상담 290건을 지원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특허 애로사항을 해결과 특허분쟁 사전방지를 통하여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 발전방향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지원체계 개편으로 산업단지 연구개발 지원기능 및 기업간 협력 강화로 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벤처기업의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지원 및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특허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사업 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작성자 : 미래산업과 신성장동력팀 신철호 / ☎ 220-3431

지역전략산업 기반구축 성과

- ⇒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육성 : 2008 ~ 2012년 1,571억원 투자
- ⇒ 지역인력양성과 과학기술진흥 : R&D 인프라 활용 제고를 통한 특화형 미래 신산업을 창출 및 친환경 녹색기술 연구개발 기반조성
- ⇒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 산학공동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실시
- ⇒ 지역 인프라 확충 : 중부 신도시·충주기업도시, 남부지역 발전방안 마련으로 자립적 특화 발전과 인프라 확충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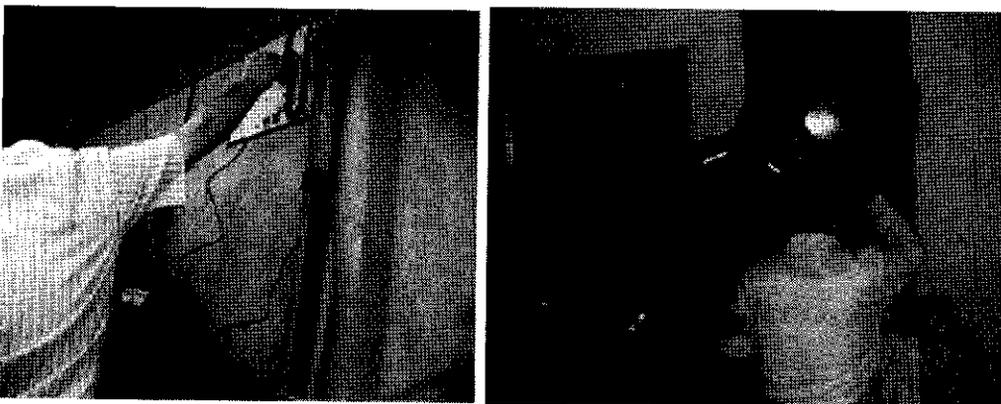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도민 최저생계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를 찾아 전기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유가·고물가시대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1단계 사업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영세가정을 대상으로 전기 제반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 실시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5천여 가구가 수혜를 입었다.

2단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세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세대, 노인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총 9,000세대 실시를 목표로 정하고, 원년인 2009년도에 1,500세대, 다음해인 2010년에 1,798세대에 대해 전기 관련시설의 무료안전점검 실시, 노후전선 교체 및 불량차단기 교체 등을 하여 줌으로써 생활 안전은 물론 서민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료 안전점검 및 노후불량시설 개·보수)

다. 발전방향

국제적 경제위기, 고유가·고물가 시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함께하는 충북 건설에 동참할 예정이다.

작성자 : 미래산업과 자원관리팀 최석렬 / ☎ 220-3441

전기시설 보수 성과

- ⇒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노인가구 등 8,471세대 수혜로 실질적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
- ⇒ 사회적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한 시책, 적극 발굴 추진

2010년도

道政白書

제5절

국제 통상 및 교류활동 강화

1.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2.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3. 자매·우호 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1.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가. 추진배경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인 조화와 노력의 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역할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세계 여러 지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1991년부터 「충청북도 국제자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도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외 지역의 유능한 인사를 발굴하여 국제자문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매우호교류지역과 인적교류를 추진하는 등 해외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교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나. 주요성과

(1) 국제교류 인적인프라 확충

2010년 1. 29 외교전문가(국제관계자문대사)를 채용하여 도정의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외교통상부 등에도 공무원을 파견하여 국제교류 인적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또한,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기간중 국제자문관, 해외충청향우회 임원 등을 초청하여 도정 홍보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표 2-6-15> 「충청북도국제자문관」 위촉현황

(단위 : 명)

지 역 별		직 업 별		출 신 지 별		성 별	
아메리카	33	회사운영	37	충청북도	48	남	76
아 시 아	18	전 문 직	15	타 시 도	25	여	3
유 럽	18	자 영 업	20	외 국 인	6		
중 동	3	기 타	7				
아프리카	3						
오세아니아	3						
러 시 아	1						

(2) 국제인적교류 및 국제화마인드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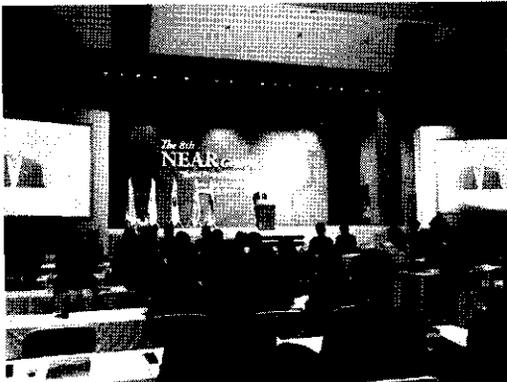
국제인적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해외 자매교류지역과의 공무원 및 유학생 상호과견 등 인적교류 추진에 따라 일본 야마나시현 및 중국 후룡강성에 각각 공무원 1명과 유학생 1명씩 파견하였고 중국 길림성 북화대학에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생 2명을 파견하였다.

<표 2-6-16> 자매결연지역 공무원 파견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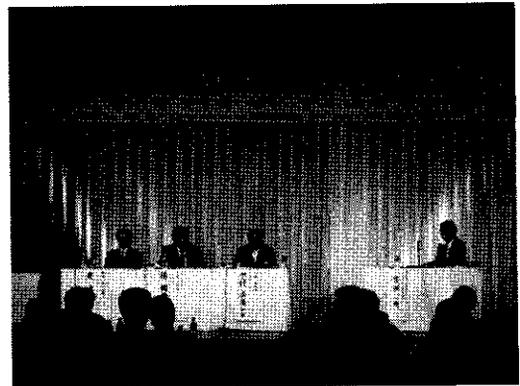
파견지역	시작년도	파견인원	파견기간
일본 야마나시현	1992년	19명	1~2년
중국 후룡강성	1997년	12명	

(3)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가활동 강화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가활동을 통해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10.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 제12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가하였고, 유니세프협력도로서 후원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 제8차 NEAR 총회 -



-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

다. 발전방향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자매교류지역과 인적교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국

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자문관의 내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미활동자는 해촉하고 유능한 인사를 신규로 위촉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제자문관을 정비하여 정예화된 인적네트워크로 도정 홍보 및 통상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작성자 : 국제통상과 미주팀 민범기 / ☎ 220-3461

해외네트워크 강화

- ⇒ 2010. 1. 29. 국제관계자문대사 채용
- ⇒ 해외 자매교류지역과의 공무원 및 유학생 상호파견
(중국 4명, 일본 2명)
- ⇒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가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2.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가. 추진배경

2010년 충청북도는 세계시장의 수요 감소, 달러화 가치 하락, 고유가 등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국제통상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별로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분야 45개 사업,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분야 16개 사업, 국제통상 인프라강화 분야 10개 사업을 3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러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71개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청주상공회의소, 한국수출보험공사, (재)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등 수출유관기관과 총력 지원체제를 갖추어 수행하였다.

한편, 2010년 충청북도의 총수출액은 103.3억불로 전년대비 27.8% 증가하였고, 총수입액은 61.2억불로 전년대비 23.2%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42.1억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충청북도의 10대 수출국은 중국 26.1%, 대만 12.3%, 홍콩 11.9%, 미국 10.4%, 일본 9.9%, 싱가포르 6.4%, 인도 2.0%, 이란 1.2%, 말레이시아 1.2%, 태국 1.2% 등 순이다. 수출 상위 10대품목은 반도체 30.5%, 광학기기 11.5%, 플라스틱제품 5.3%, 건전지및축전지 5.2%, 기구부품 5.0%, 자동차부품 4.1%, 무선통신기기 3.5%, 전선 2.6%, 유선통신기기 1.5%, 합성수지 1.5% 등 순이다. 또한 10대 수출기업은 (주)하이닉스반도체 23.5%, (주)엘지화학 13.5%, 엘지전자(주) 5.3%, 매그나칩반도체(유) 2.4%, (주)심텍 2.4%, (주)일진글로벌 1.8%, 한국다우코닝(주) 1.6%, (주)파워로직스 1.3%, 엘에스산전(주) 1.2%, 미래나노텍(주) 1.2% 등 순이다.

나. 주요성과

(1)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분야

2010년 충청북도는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분야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충북우수상품전 개최사업, 충북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사업,

해외 충북우수상품전 개최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사업추진에 있어서 KOTRA 해외KBC 등 해외시장정보에 정통한 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사전 바이어 섭외 등을 통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해외 충북 우수상품전은 베트남 최대의 경제도시 호치민에서 개최하였으며 도내 기업 29개사를 파견하여 4천만불을 계약추진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충북 해외무역사절단은 구주 무역사절단(이스탄불, 아테네, 비인)을 시작으로 CIS 무역사절단(블라디보스톡, 키예프, 소피아), 일본 무역사절단(후쿠오카, 오사카), 중남미 무역사절단(보고타, 산티아고, 리마), 동남아 무역사절단(하노이, 호치민), 중동-아프리카 무역사절단(암만, 카이로, 트리폴리), 인도 무역사절단(뉴델리, 뭄바이), 중동 무역사절단(이스탄불, 두바이), 중화 무역사절단(타이베이, 광저우), 아시아 무역사절단(마닐라, 싱가포르) 등 총 10회에 92개 기업을 파견하여 1억9백만불의 계약추진 성과를 올렸다.



- 2010 호치민 충북 우수상품전 개막식 장면 -

국제무역박람회 충북기업관은 상해 화동교역전 참가사업을 시작으로 동경 한국 우수상품전, 하노이 베트남엑스포, 홍콩 가정용품전, 홍콩 선물용품전, 상해 미용화장품전, 닝보 국제일용소비품박람회, 대구 국제수송기계전,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 다마스쿠스 국제박람회, 알마티 건축전시회, 동경 선물용품전, 심양 동북아수입상품박람회, 광저우 추계 수출입교역회, 대구 세계한상대회, 홍콩 차이나소싱페어, 심천 국제선물용품박람회, 이우 국제소상품박람회, 심천 국제하이테크페어, 두바이 건축자재박람회, 호치민 종합박람회 등 총 22회를 운영하여 176개 기업이 2억3천만불을 계약추진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해외바이어초청 충북무역상담회는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하였으며 9개국 36개사 바이어를 초청하여 도내 104개 기업과의 수출상담을 주선한 결과 1천7백만불을 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B2B 사이버 수출상담회는 2회를 개최하여 24개사가 10백만불을 계약 추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은 47개사 120백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사업 77개사 50백만원, 해외전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40개사 100백만원, 온라인 타겟마케팅 지원사업 25개사 25백만원, 유망중소기업 수출촉진화사업 10개사 80백만원, 영세중소기업 수출후속 지원사업 10개사 25백만원, 수출기업 해외홍보 지원사업 80개사 40백만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은 112개사 38백만원 등을 총력을 다하여 지원하였다.

(2)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분야

2010년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활발히 추진하였다.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수출유망 전략산업의 해외 토털마케팅을 위한 전략산업 글로벌마케팅사업을 통하여 10개사 8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지원사업은 10개사 25백만원, 중소기업 수출보험지원사업 94개사 165백만원, 수출확대전략세미나 개최사업 2회 167명, 내수기업 수출전환 지원사업 20개사 100백만원, 무역전문정보 지원사업 500개사 55백만원, 충북 통상아카데미 운영사업 108명 20백만원,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사업 60개사 90백만원, 수출기업 CD 카탈로그 지원사업 30개사 30백만원, 수출기업 외국어홈페이지 지원사업 20개사 20백만원, 중소수출기업 무역도우미 지원사업 25개사 40백만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0개사 50백만원, 충북비즈니스가이드 제작홍보사업 150개사 50백만원,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381건 80백만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는데 노력하였다.

(3) 국제통상 인프라강화 분야

2010년 충청북도는 국제통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초에 수립한 2010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도내 중소기업에게 알리기 위한 국제통상시책 설명회를 수출진흥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와 동시에 2010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종합추진계획의 정책정보를 충북 글로벌마케팅시스템(www.cbgms.net)에 게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충북 대표수출기업 20개사를 수록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였고, 충북 글로벌마케팅시스템 홈페이지(www.cbgms.net)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 충북수출상품 해외직판전을 인도네시아, 유럽, 오사카, 뉴질랜드 등 지역에서 4회를 개최함으로써 112개사의 수출시장개척 및 상품홍보를 지원하였다. 또한 충북 무역의날 행사(12. 2, 라마다호텔), 충북 수출확대 민관합동회의(10. 1, 도청 대회의실), 충북 수출 100억불 달성 기념행사(12. 22, 청주대교 분수대) 등을 개최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마인드 제고에도 노력하였다.

다. 발전방향

충청북도는 2010년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무역박람회 충북무역관 운영사업은 전년도 참가 국제박람회중 성과가 우수한 곳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실적이 저조했던 곳은 신규로 대체하여 추진하였다. 충북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은 소비시장이 크고 경쟁력 우위인 지역을 선정하였고, 사절단별로 장거리코스인 경우 1회당 방문지역을 2지역에서 3지역으로 늘림으로써 경비절감과 바이어 접촉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마케팅사업 참가 이후 바이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세중소기업 수출후속 지원사업,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도 개발하여 지원하였다.

2011년에도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활발한 해외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수출실적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기존의 시책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발전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작성자 : 국제통상과 중국팀 장형석 / ☎ 220-3481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성과

-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 45개 사업, 2,130백만원 투입, 826개사 지원
-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 16개 사업, 780백만원 투입, 1,657개사 지원
- ⇒ 국제통상 인프라강화 : 10개 사업, 138백만원 투입, 760개사 지원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 www.cbgms.net -

3. 자매·우호 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가.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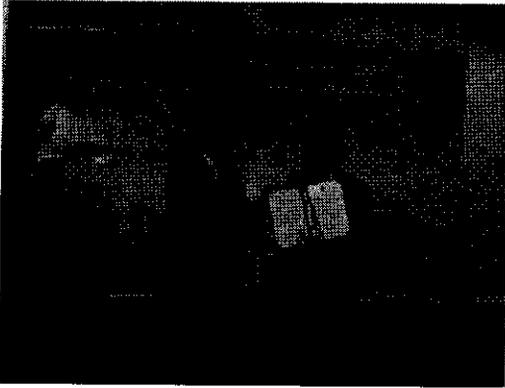
오늘날 사회의 패러다임이 국제화·정보화·지방화로 변화된 지금의 환경에서 국가보다는 지역 거버넌스가 강조됨에 따라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국가보다는 지방 자치단체가 국제화 추진의 주체가 되고 있으며, 그 역할 또한 국가보다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 여러 지역과 상호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충청북도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통한 지역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행정·문화·스포츠·산업경제·기술·학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활동을 추진해 왔다.

나. 주요성과

2010년 한해 충청북도는 미국 아이다호주를 비롯, 일본·중국·멕시코·아르헨티나·헝가리·러시아·필리핀 등 세계 12개국 21개 지역과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 탄탄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친선교류는 물론 양 지역의 현안사업의 협력 강구를 위한 경제적·실리적 교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 자매·우호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충청북도는 '한방의 메카 제천'을 알리기 위하여 국제적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제천한방엑스포」를 자매결연 지역 및 우호지역 등에 홍보하여 중국 흑룡강성 등 3개국 5개 지역으로부터 22명의 대표단이 충청북도를 방문하였으며, 우호교류 지역인 필리핀 벵겟주에 소방장비 19종 1,084점을 지원, 친선관계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향후 필리핀 내 유사장비 소요시 우리도 생산 장비 수출 등을 도모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예술단, 베트남 빈푹성 전통예술단 초청하여 도민들에게 국제적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중국 사천성에서 개최된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 및 러시아 상트시 국제전통음악 페스티벌 참가 등으로 충청북도민들의 국제적 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 필리핀 벵겟주 소방장비 전달 -



-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 참가 -

(2) 자매·우호 지역간 수출시장 개척

충청북도는 자매결연지역인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에 도내 중소기업 참가를 도와 계약실적 35건 13,773백만원을, 차이나 아세안 엑스포에서는 계약실적 20건 2,556백만원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외 중남미 최대시장인 멕시코 시장개척을 목표로 멕시코 풀리마주 산토스 박람회에 참가하여 향후 중남미 시장 확대를 위한 꾸준한 접근을 시도하였고, IT·농생명공학·신재생에너지 분야 교류 확대 협의, 양 지역 역점사업 교류협의 등 경제적 교류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 참가 -



- 차이나 아세안 엑스포 참가 -

(3) 신규 교류지역 개척

충청북도는 세계 지방간의 교류 확대의 필요성, 교류형태의 다변화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규교류지역 개척에도 힘을 쏟았다. 국내 제2의 포도생산량을 자랑하는

충청북도 남부지역의 와인산업 발전을 위하여 세계 최고 와인 품질을 자랑하는 프랑스 보르도와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카자흐스탄·세네갈 등과의 교류 협의로 교류지역 다변화를 모색하였고, 충주 하나마을과 베트남 빈푹성 등 마을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을 통하여 교류 주체를 세분화·다양화 하였다.

다. 발전방향

기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지역을 중심으로 친선교류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스럽게 민간단체간 교류 형태로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교류 분야 및 교류 지역을 개척하여 교류 다변화에 능동적·주체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여 사업규모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도 ODA지역과의 교류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지향적으로 실리를 도모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작성자 : 국제통상과 아시아팀 김호식 / ☎ 220-3471

자매·우호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 필리핀 뱅갯주 소방장비 지원(19종 1084점)
러시아 상트시 국제전통음악 페스티벌 참가
- ⇒ 자매·우호지역간 수출시장 개척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 차이나-아세안 엑스포
멕시코 콜리마주 산토스 박람회)
- ⇒ 프랑스 보르도와 교류 추진,
충주 하나마을과 베트남 빈푹성 등 마을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